

【특 집】

사할린 이동서사로 본 재일(在日)의 심상경관

—이회성 『백년동안의 나그네』를 중심으로—

장은애*

丨 차 례 丨

- I. 들어가며: 사할린이라는 출발지
- II. 제국주의와 냉전질서를 가로지르는 '재일'의 횡단기
- III. 이동이 초래한 '재일'의 위치와 국민-국가 초월 가능성
- IV. 하리오수용소 경험과 고백을 통한 '재일'의 형상화
- V. 나그네의 형상과 '재일'의 발자취
- VI. 나가며: 반(反/半) 국민적 상상력과 '재일'의 심상경관

국문초록

본 논문은 이회성의 『백년동안의 나그네』에 제시된 '이동'이라는 모티브에 주목하여 이동을 통해 재일의 실존이 구조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동을 통해 구조된 재일의 실존이 제국주의에서 냉전으로, 그리고 다시 국민-국가라는 또 다른 형태의 전체주의적 질서로 전환되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떠한 가능성을 담지하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백년동안의 나그네』는 세계대전 종전 후, 국제질서가 제국주의에서 냉전으로 전환되던 1947년을 배경으로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밀항한 조선인들의 이동과 역류를 서사적으로 형상화한다. 이상과 관련하여 본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이동이라는 사건이 재일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다. 이동은 자기발견에 대한 인식론적 계기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존재형성의 원리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착안하여 이동과 재일의 형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맞물리는지 다양한 층위에서 살핀다.

이에 본 논문의 제1장에서는 이동의 출발점인 사할린의 의미를 조명하는 가운데, 이동이 서사와 존재의 실존을 구조하는 양상을 살핀다. 다음으

*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로 제2장에서는 이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출현하는지 살핀다. 이어 제3장에서는 이동과 맞물려 재일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피고 이로부터 국민-국가를 초월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한다. 제4장에서는 국민-국가의 폭력에 대하여 저항으로서 고백의 문제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재일의 실존 그 자체인 나그네 형상을 중심으로 재일에 관한 사유를 확장한다.

본 논문은 이상의 문제를 짚어가며 이동이 추동한 재일의 심상경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현현하는지 살핀다. 이로써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재일의 심상경관이 국민-국가를 가로지르는 재일의 이동-삶 속에서 출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재일의 심상경관은 국민-국가 바깥에 실재하는 여러 존재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는 사유의 거점이 된다.

주제어: 사할린, 이동, 나그네, 재일(在日), 국민-국가, 심상경관, 자기인식

I. 들어가며: 사할린이라는 출발지

사할린은 이회성의 작품세계 전반을 감싸고 있는 하나의 원형적 풍경/심상으로서 이회성 문학의 아이덴티티와 독자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문학적 장소이다. 그중에서도 『백년동안의 나그네』¹⁾는 사할린의 장소성이 작품의 형식적, 의미적 완결성과 긴밀하게 연동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백년동안의 나그네』는 사할린 거주 일본인 송환이 시작되고 1년 후인 1947년을 시간적 배경으로, 전전에는

1) 1994년 5월 일본 잡지 <신조>에 『백년동안의 나그네』 전편이 발표되고, 이어서 같은 해 6월에 동일한 잡지에 후편이 발표된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에는 신조사에서 『백년동안의 나그네』 ㉔, ㉕가 단행본으로 출간되었고, 11월에는 『백년동안의 나그네』가 제47회 노마(野間)상을 수상한다. 한편 한국에서는 1995년 4월에 프레스빌사에서 김석희 번역으로 『백년동안의 나그네』 ㉔, ㉕를 간행하고 출판기념회를 열지만, 이회성은 한국정부로부터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해당 기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송하춘, 1999, 『역사가 남긴 상처와 민족의식-이회성론(2)』, 『한국학연구』 제11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81쪽; 박정이, 2002, 『이회성의 『百年の旅人たち』一考察』, 『日語教育』第21輯,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18쪽 참조). 본 논문에서 다루는 『백년동안의 나그네』는 1995년 프레스빌사에서 간행된 텍스트로, 이하 논문 내에서 소설을 인용할 때는 인용문 뒤에 (㉔/㉕:페이지)로 표기하도록 한다.

일본의 영토였으나 일본 패전 이후에는 소련의 점령지가 된 남사할린(가라후토)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이 남사할린에서 출발해 일본의 하코다테, 아오모리, 센다이, 도쿄, 오사카, 고베, 규슈, 시모노세키를 거친 후 나가사키 하에노사키 역에서 내려 하리우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그로부터 다시 귀환/이산하기까지의 여정을 서사화한다.

문학적 장소로서 사할린의 위상은 이곳이 제국주의 및 일본의 식민지 지배,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전개된 냉전질서와 관련하여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²⁾ 이회성의 문학은 사할린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이러한 역사적 파란 가운데 일본 제국의 피식민자인 조선인의 생활을 형상화한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실제로 재일조선인 문학의 계보에서 이회성이 차지하는 위상 또한 사할린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아울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의 문학은 민족문학이라는 한정을 초과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이회성 문학세계의 이와 같은 특징을 두고 “권력의 중심/주변부, 민족(국가)의 내부/외부라는 경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트랜스내셔널리즘의 문제의식”³⁾을 담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사할린 이주 조선인의 파란만장한 이주사가 전경으로 펼쳐지는 가운데⁴⁾, 『백

2) 널리 알려졌듯 사할린은 ‘유형의 섬’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평가되었다가 1855년 일본과 러시아 양국이 일러화친조약(시모다 조약)을 체결하면서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데, 당시는 사할린을 어디에 귀속시킬 것인지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약이 체결된다. 그러다 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가라후토·치사마 교환 조약)을 통해 러시아가 사할린의 점유권을 갖게 된다. 이후 러·일전쟁(1904-1905)이 발발하였고 승전국인 일본이 사할린 섬 전체를 점령하였으나 포츠머스 강화조약에 따라 사할린 북부는 러시아 측에, 남부는 일본이 각각 점유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일본이 차지한 남부 사할린이 ‘가라후토’라고 불렸다. 가라후토 점령 이후 일본은 가라후토청을 설치(1907)하여 사할린 남부를 통치하였으나 1920년 니콜라옌스크 사건(니항 사건)이 발발하자 이를 계기로 일본은 사할린 북부를 점령하여 군정을 시행한다. 그리하여 일본은 1920부터 1925년까지 사할린 섬 전체를 장악하지만, 1925년 체결한 일소기본조약에 의해 다시금 그 세력권이 사할린 섬 남부로 축소된다. 그렇게 사할린 섬의 북쪽은 러시아가, 남쪽은 일본이 각각 통치하는 상태를 이어오다가 1945년 8월 9일 소련이 일소기본조약을 파기하고 대일 참전하면서 가라후토로 침공했고, 뒤이어 8월 23일에는 가라후토를 점령했다(파이차제 스페틀라나·현무암, 서재길 역, 2019, 『사할린 잔류자들』, 책과함께, 254-258쪽).

3) 윤성호, 2011, 「누가 민족문학을 두려워하라: 트랜스내셔널리즘 시대의 민족문학론」, 『근대한국, '제국'과 '민족'의 교차로』, 책과함께, 342쪽.

년동안의 나그네』의 시공간적 배경은 전후의 긴장이 고조된 사할린을 출발지로 하여 하코다테의 귀환자 구호소-아오모리-센다이-도쿄-오사카-고베-규슈-시모노세키-나가사키의 하리오수용소로 이어지는 식민 여로의 역행 속에서 펼쳐진다.⁵⁾ 더불어 『백년동안의 나그네』는 이처럼 식민 여로를 역으로 되짚어가는 ‘이동’을 통해 과거의 제국주의와 현재의 냉전이 서로 맞물리며 새로운 의미를 낳는 일련의 과정을 서사적으로 형상화한다. 그랬을 때 의미화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할린과 사할린을 터전 삼아 살아갔던 조선인의 실존 그 자체이다.

이때의 사할린은 물리적인 실체를 갖는 실제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기억과 회상을 통해 의미가 재구성되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백년동안의 나그네』에서 사할린은 특정한 방식으로 고정화하지 않고 이동의 중 형성된 현재적 관점에 따라 그 의미나 형상이 계속 변모한다. 요컨대 사할린은 이회성 문학의 근간을 이루는 원형적 심상이면서 동시에 역사적 장소이며, 이동이라는 특정한 상황과 맞물릴 경우 앞서 언급한 것들 이상을 담지한 장소로 현상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모빌리티(Mobility)라는 개념은 이동이 공간의 의미형성과 관계

- 4) 일반적으로 사할린 이주자는 두 분류가 있다. 그중 첫 번째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로 인한 빈곤 때문에 조선을 떠나 사할린에 정착한 이주자로, 그들은 18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사할린으로의 이주를 시작한 이래로 1939년까지 계속해서 이주했으며, 대부분 북사할린에 거주했다. 한편 또 다른 부류는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인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국가총동원령에 의해 강제 연행된 이들로(이순형, 2004, 『사할린 귀환자』, 서울대학교출판부, 11쪽), 그들은 일본의 식민정책에 따른 삼립 또는 탄광 개발을 목적으로 남사할린(가라후토)으로 징용된 이들이었다(김민영, 2000, 「사할린 한인 이주와 노동, 1939-1945」, 『국제지역연구』 제4호, 국제지역학회, 39쪽; 이재혁, 2011, 「일제강점기 사할린의 한국인 이주」,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15집,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104-106쪽). 한편 가라후토로 이주한 조선인들의 생활은 자의든 타의든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따라 ‘협화회’에 가입하거나 전쟁을 위한 모금 활동에 참여하고 비행장 건설 등의 토목공사에 동원되는 등 친일적 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다 소련이 사할린을 점령한 1945년 8월 23일을 기점으로 해서는 일본인 및 일본에 협력한 조선인에 대한 색출이 시작되면서 사할린 조선인 사회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그 가운데 1946년 무렵부터는 GHQ와 소련 사이에 ‘소련지구미소송환잠정협정’이 체결되면서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송환되었지만, 조선인들의 송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과정을 거치며 많은 조선인들이 사할린에 잔류하게 되었지만, 일부 조선인들은 일본인으로 위장하여 일본행 귀환선을 타고 밀항하기도 했다.
- 5) 일반적으로 사할린으로 유입되는 경로는 부산-시모노세키-나고야-동경의 우에노-아오모리-홋카이도의 하코다테-와카나이로 북상하는 것인데(이순형, 위의 책, 47쪽),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귀환하는 경우에는 사할린으로 향했던 경로와 정반대로 역행하여 하코다테-아오모리-도쿄-오사카-고베-규슈-시모노세키 순으로 남하하여 부산으로 향한다.

맺는 방식에 관한 통찰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모빌리티는 “사회적 관계의 교차”를 만들어 내는 동인으로 간주되는데, 이 경우 모빌리티는 “개인(또는 사물, 지역) 간 이동의 차이가 만드는 ‘정치’에 해당하며, 행위주체(사람과 사물)의 다양한 경험과 의미가 결합되고 ‘실천’되는 실체”로서 “이동이 생성하는 공간” 그 자체를 의미한다. 요컨대 그것은 “이동에 내재하고 이동에 의해 나타나는 다양한 정치, 실천 및 장소의 ‘관계’”인 것이다.⁶⁾

이동이 공간의 의미화를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이상의 설명은 『백년동안의 나그네』에서 현재의 이동이 사할린이라는 장소의 심상과 의미를 주조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이를 통해 소설에서의 서사 진행과 의미를 추동하는 형식으로 기능하는 양상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즉 현재의 이동을 통해 사할린을 의미 있는 장소로 재발견하는 과정 속에서 서사의 의미 생성이 수반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동 중 사할린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은 소설의 인물이 자신에게 주어진 실존적 질문을 완성해 나가감으로써 ‘재일’로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과도 맞물린다.

이상과 함께 이동이라는 측면과 맞물린 『백년동안의 나그네』의 서사적 특징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상권과 하권으로 나뉘어 있는 『백년동안의 나그네』를 관통하는 것은 이동이라는 모티브이며, 이때의 이동에는 역사적 경험으로서의 이동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실존적 탐구의 과정으로서의 이동 등 이동을 둘러싼 다양한 층위의 이해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특히 역사적 경험으로서의 이동의 경우에는 이동을 초래한 국제적/정치적 힘의 질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이동은 물리적인 현상으로서의 이동으로 그 의미를 한정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 역학으로서 강대국의 영향력과 힘이 관철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역사적 경험으로서의 이동을 이야기할 경우에는 역류, 수용, 유배 등 일반적인 조건에서라면 반(反)이동이라고 인식될 상황까지도 이동의 범주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6) 이용균, 2015, 「모빌리티의 구성과 실천에 대한 지리학적 탐색」,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8호, 한국도시지리학회, 151쪽.

한편 역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 사할린에서 출발하는 조선인의 여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국가 차원에서 전개되었던 세계적 수준의 대규모 이동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 경우에 이동은 크게 '인양'과 '귀환'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재일의 이동은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가 국민-국가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해외로 흩어진 자국민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방식인 인양이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국경 밖으로 나가 있던 국민들이 국가로 돌아오는 귀환 중 그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재일의 이동을 디아스포라의 형상으로 포착하려는 시도도 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가 돌아가야만 하는 구체적, 상징적 장소로 회귀하려는 욕망을 간직한 채 떠도는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인 것에 비해 재일의 이동은 과거 식민지 종주국 이자 현재는 재일이 살아가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재일을 야기한 원인을 추궁하거나 재일을 억압하는 조건들과 대결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재일의 이동을 디아스포라로 파악하려는 시도 또한 적합한 이해라고 할 수는 없다. 재일의 이동은 기존의 이동 담론들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상의 문제의식 아래 본 논문은 재일의 이동을 기존에 존재하는 이동 담론으로 환원하지 않는 대신, 재일이라는 실존 양식과 맞물려 재일의 이동을 둘러싼 다양한 제반 조건들을 환기하고 재구성하는 문제적 상황으로서의 '이동'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처럼 이동에 주목했을 때 이동이 추동하는 재일의 현존이 내셔널리즘으로 한정되는 국민-국가의 범위를 초과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재일이라는 상태가 내셔널리즘으로는 환수되지 않는 잉여로서 국민국가라는 이데올로기를 객관화, 상대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재일의 그러한 특징은 국민-국가의 정당성을 반문하기 위한 사상적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상의 문제의식 및 대상 텍스트의 연관 속에서 그간 축적된 선행연구의 경향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재일조선인 문학의 계보를 훑아보면서 이회성의 문학적 위치를 가늠하거나 그의 문학이 담고 있는 문제의식 내지는 주

제의식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연구가 있다.⁷⁾ 다음으로 전기적 관점에서 이회성의 작품세계 전반을 두루 살피는 연구가 있다.⁸⁾ 그밖에 주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회성 작품세계의 주요 테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정체성의 문제에 천착한 연구나⁹⁾ 이회성이 재현하는 디아스포라적 양상에 주목한 연구가 있으며,¹⁰⁾ 이회성 문학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 사할린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탐색하는 장소성 연구,¹¹⁾ 그의 문학의 보여주는 탈식민적 가능성에 주목한 연구 등이 있다.¹²⁾

한편 『백년동안의 나그네』에 나타나는 ‘이동’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이동이 만들어 내는 서사적 의미의 지평을 논구하고자 한 본 논문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는 연구도 다수 제출되었다.¹³⁾ 하지만 이상의 연구들은 이동을 국제 정세의 변동

- 7) 소재영, 2009, 「재일동포문학의 민족문화적 성격 연구」, 『국학연구론총』 제4집, 태민국학연구원; 장사선, 2007, 「재일 한민족 문학에 나타난 내셔널리즘」,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1호, 한국현대문학회; 세리카와 데쓰요, 2010, 「재일 한국인 작가의 분단의식」,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홍기삼, 2001, 「재일 한국인 문학론」, 홍기삼 편, 『재일 한국인 문학』, 솔; 이한창, 2001, 「아쿠타가와 상을 통해 본 재일 동포 문학」, 홍기삼 편, 『재일 한국인 문학』, 솔; 이한창, 2008, 「재일 동포문학에 나타난 부자간 갈등과 화해-1. 2세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재일 동포 문학과 디아스포라』 3, 제이앤씨; 양명심, 2008, 「‘재일’작가로서의 이회성과 그의 문학세계」, 『재일 동포 문학과 디아스포라』 3, 제이앤씨; 김환기, 2006, 「재일 코리언 문학의 계보」, 김환기 편,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새미; 이소가이 지로, 2006, 「신세대 재일 작가의 지형도」, 김환기 편,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새미; 김환기, 2006, 「조국과 자기 사이의 거리인식과 민족문제의 제기」, 김환기 편,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새미.
- 8) 송하춘, 1998, 「역사가 남긴 상처와 민족의식-이회성론 (1)」, 『한국학연구』 제10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9, 「역사가 남긴 상처와 민족의식-이회성론 (2)」, 『한국학연구』 제11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이한창, 2017, 「이회성의 전기 작품 활동과 문학세계」, 『일본어문학』 제72집, 한국일본어문학회; 2008, 박정이, 「이회성 문학의 특징-시대별 특징을 중심으로」, 『재일 동포 문학과 디아스포라』 1, 제이앤씨.
- 9) 양명심, 2003, 「이회성 초기작품에 나타난 ‘정체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다케다 세이지, 2016, 『‘재일’이라는 근거』, 소명출판.
- 10) 김환기, 2018,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의 경계의식과 ‘트랜스네이션」, 『횡단인문학』 창간호, 숙명인문학연구소.
- 11) 박호영, 2001, 「이회성의 문학 작품에 나타난 장소 이미지: 가라후토樺太 마오가眞岡를 중심으로」, 홍기삼 편, 『재일 한국인 문학』, 솔; 박정이, 2002, 「이회성의 『百年の旅人たち』-考察」, 『日語教育』 第21輯, 한국일본어교육학회.
- 12) 정재훈, 2011, 「이회성 초기 소설에 나타난 탈식민성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양명심, 2019, 「해방 직후 일본의 모빌리티 시스템과 ‘재일조선인’의 형성-이회성의 『백년동안의 나그네(百年の旅人たち)』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제84집, 일본어문학회; 민병은, 2016, 「1945년 전후 사할린 거주 한국인들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의 다양성 연구-이회성의 『백년동안의 나그네』 분석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제30집, 한일민족문제학회; 박광현,

속에서 촉발된 하나의 사태로 간주했을 뿐, 이동이 의미 생성 과정을 추동하는 원리 그 자체임을 충분히 의미화하지는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동'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백년동안의 나그네』가 형상화하는 이동서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동 중 제일의 현존이 주조되는 양상과 제일의 현존이 제국주의에서 냉전으로, 그리고 다시 국민-국가라는 또 다른 형태의 전체주의적 질서로 전환되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떠한 가능성을 담지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랬을 때 사할린은 특수성과 보편성 사이를 왕래하는 제일의 현존이 생성되는 현상으로서 『백년동안의 나그네』가 형상화하는 여로의 출발 선상에 위치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환기될 것이다.

II. 제국주의와 냉전질서를 가로지르는 '재일'의 횡단기

『백년동안의 나그네』는 전전의 제국주의 질서로부터 전후 냉전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경'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국민-국가라는 통치 시스템이 출현하는 가운데, 이동의 규제가 이에 따른 새로운 질서와 규율로 사람들의 신체를 길들이고 억압하고 배제하려는 기획과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동의 규제가 국가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고 국경의 경계를 확정하며, 국경 내부에 대한 국가의 통치성이 발휘되는 수단으로 동원되었던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존 토피는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인 여권과 통행증의 기능에 관해 설명하면서 그것이 "경계선에 의해 구획되는 공간 안에서 이뤄지는 이동과 그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이동을 규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경계가 있는 영토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확인하고, 인구를 장악하며, 원치 않

2014, 「'재일'의 심상지리와 사할린, 『한국문학연구』 제47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변화영, 2008, 「고백과 용서의 담론—이회성의 『백년동안의 나그네』를 중심으로, 『국어문화회』 제44집, 국어문학; 유숙자, 2000, 『재일한국인 문학연구』, 월인; 김병구, 2009, 「이산과 '재일'적 삶의 기원에 대한 탐색—이회성의 『백년동안의 나그네(百年の旅人たち)』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3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는 국외자를 배제하는 국가의 권한을 강화하는 기능 등을 공유”¹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지하듯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동안 조선과 ‘내지’는 하나의 ‘생활권’이었기에 둘 사이의 왕래는 빈번했다. 그러나 일본이 패전한 이후 한국과 일본 양국이 상대국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기존에 자연스럽게 이어져 오던 이동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 아울러 생활권도 파괴되었다.¹⁵⁾ 일본 내에서 조선인의 이동은 ‘불법화’되었고,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왕래는 불법 입국, 밀항, 밀무역 등의 범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¹⁶⁾ 같은 시기 일본 내 조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이동에 대한 법적 조치는 강제 송환, 억류, 추방 등이었다. 이와 같이 조선인이 기존에 행해왔던 이동이 제한되면서 억류, 추방 등 새로운 이동 양식으로 대체되는 양상은 제국주의 붕괴와 냉전질서의 확립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출현과 함께 전후 국민국가 형성과 국경의 재조정이라는 문맥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사할린에서 출발하는 조선인의 이동은 내셔널리즘으로 환수되지 않는 재일의 독특한 위치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전후 국제질서가 냉전체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사할린에 거주하던 조선인의 신분/지위가 ‘비국민’으로 규정되는 가운데, 어디에도 정주할 수 없었던 그들의 실존이 담지하는 가능성의 영역을 주목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전후 사할린을 떠나

14) 존 토피, 이충훈 외 역, 2021, 『여권의 발명』, 후마니타스, 301쪽.

15) 김예림은 “식민지 시기, 제국 내 로컬들의 경계는 국민국가형 실선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게 아닌 점선 형태로 상호 연결-연접된 형태의 “상징적 지형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그는 일본 패전 이후 국가의 영토 경계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구식민지와 구제국 사이의 이동이 물리적으로 규제”되고, 이에 따라 현해탄이라는 공간이 “보통의 생활인에게는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불통지대로 닫힌 채-열린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었지만, 이전까지 조선과 일본을 왕래하던 사람들의 감각 속에서 “영토의 법적 분할에도 불구하고 영토선을 따라 ‘깨끗이’ 분할되지 않은 채 연속-연장”되고 있었기에 “법의-범위와 삶의-범위 사이의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김예림, 2011, 『현해탄의 정동—국가라는 ‘슬픔’의 체제와 밀항』, 『석당논총』 제49집, 동아대학교부설 석당전통문화연구원, 317-323쪽).

16) 미야모토 마사야키, 2008, 「점령기 일본 정부의 재일조선인 대책 검토—1948년 중반~1949년 초를 중심으로」, 『제3회 미귀환연구 학술심포지엄—해방후 해외 한인의 희생과 미귀환』,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07쪽 참조.

온 조선인의 이동이 『백년동안의 나그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화하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재일의 ‘이동’을 촉발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후 연합국은 국제질서를 새롭게 편성하고 일본의 전후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제국에 편입되었던 사람들을 국민국가라는 틀 안에 통합하고자 했다.¹⁷⁾ 이러한 문맥 속에서 1946년 11월 27일부터 사할린 거주 일본인의 송환이 시작되었다. 사할린에서의 일본인 송환은 당시 일본은 점령했던 GHQ(연합국군총사령부)와 소련이 체결한 ‘소련지구미소송환잠정협정’에 의거했다. 이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일본인 송환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조선인 귀환자는 없었다.¹⁸⁾ 그러나 당시 조선인은 일본 국적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¹⁹⁾였으므로 ‘일본국민’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일본으로 귀환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명분도 있었지만 그러한 사실은 고려되지 않았다.²⁰⁾ 일본은 GHQ에 사할린에 남겨진 자국민을 신속히 송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조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²¹⁾ GHQ 또한 사할린에 남겨진 조선인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재일조선인

17) 현무암·파이차제 스페틀라나, 앞의 책, 275쪽 참조.

18) 현무암·파이차제 스페틀라나, 앞의 책, 276-277쪽 참조.

19) 일본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한국에 속하는 영토에 대한 주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한국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주권을 포기”(최계수, 2006, 『사할린 억류 한인의 국적귀속과 법적 제문제』, 『제1회 미귀환연구 학술심포지엄-해방후 해외 한인의 회생과 미귀환』,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91쪽 참조)한다고 선언한다. 이어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된 뒤에는 재일조선인을 포함한 모든 한인이 일본국적을 상실하는데, 이렇듯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성립 및 발효 시기를 고려한다면 송환이 개시된 1947년 무렵은 조약이 조인되기 전이므로 사할린 거주 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보유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20) 최계수, 위의 논문, 89쪽 참조.

21) 일본 측은 사할린 거주 조선인 미귀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고자 1952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발효되기 전까지 연합국 점령하에서 독자적인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을 내세우는 한편으로, 사할린 한인 귀환문제는 GHQ의 책임하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시 일본 정부는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논리에 대하여 GHQ의 일본 통치는 일본인이 구성한 내각에 명령을 하달해 사법 및 행정 및 행정 시행하게 하는 ‘간접통치’ 방식을 취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채영규, 2007, 『미귀환 재일 한인의 거주권 문제와 일본의 탄압정책』, 『제2회 미귀환연구 학술심포지엄-해방후 해외 한인의 회생과 미귀환』,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13쪽 참조). 여기서 더 나아가 김승일의 경우에는 귀환 업무는 일본 정부가 GHQ에 제공한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GHQ의 지시는 일본정부가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의 지위를 “해방인민이면서도 일본 국민이므로 자신들의 敵國人”²²⁾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일본이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를 편의적으로 해석할 빌미를 제공하기까지 했다. 한편 소련은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를 의식하거나 사할린 지역의 노동력 유출을 우려하는 등의 이유로 조선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으로,²³⁾ 일본군에 징용되었던 조선인을 포로수용소에 가두고 사할린이 가라후토였을 당시 일본에 협력했던 조선인들을 색출해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냈다. 그런가 하면 남한 정부가 해방 후 혼란 속에서 좌우 이념 대립, 친일파 처리 문제 등 국내에 산적한 문제를 수습하는데 급급해 재일조선인을 비롯하여 식민지 시기 곳곳으로 흩어졌던 재외 국민의 안위를 신경쓰지 못했던 정황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나 자국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황²⁴⁾에서 사할린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은 일본인으로 위장하여 일본인을 호송하는 귀환선을 타고 일본으로 밀항했던 것이다.

사할린 거주 조선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동은 국제 정세 재편성에 따른 피치 못한 떠밀림이자 고향 상실의 여로였다. 그러나 당시의 국제 정세 속에서는 이동의 그러한 측면은 충분히 고려될 수 없었다. 오히려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은 상태로 ‘불법적으로’ 국경을 월경하는 조선인은 국민-국가의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특히 소련 지배하의 사할린에서 연합군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본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김승일, 2006, 「사할린 한인 미귀환의 접근과 제언」, 『제1회 미귀환연구 학술심포지엄-해방후 해외 한인의 희생과 미귀환』,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79쪽 참조).

22) 채영국, 위의 논문, 113·119쪽 참조.

23) 소련 정부는 “소련 영토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소련 국민이 아니면서 자신과 외국의 관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무국적자로 간주한다”는 소련 국적법 제8조를 근거로 사할린 거주 조선인을 무국적자로 취급하고 귀환을 막았다(여성구, 2008, 「사할린 한인의 희생과 미귀환」, 『제3회 미귀환연구 학술심포지엄-해방후 해외 한인의 희생과 미귀환』,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1-13쪽 참조).

24) 장석홍은 “강제연행의 경우 일제가 침략전쟁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제한 것에 비해, 귀환은 해외 한인과 관련된 해당국의 이해에 따라 향방이 결정”(장석홍, 2003, 「해방 후 귀환 문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5집, 한국근현대사학회, 13쪽)되었다고 지적하는 한편으로, 해방 후 조선인 귀환문제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성립된 국제질서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귀환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넘어온 사할린 거주 조선인의 이동은 단순히 국경을 월경하는 것 이상이었다. 즉 공산주의 진영에서 자유주의 진영으로 넘어간 사할린 거주 조선인의 이동은 세계적 차원의 냉전 구도 속에서 서로 적대하고 있는 체제 사이를 넘나드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진영에서는 이들의 이동으로 인해 체제의 위기 내지는 혼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할린 거주 조선인의 이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했다. 요컨대 사할린 거주 조선인의 이동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로 양분화된 세계질서의 모순과 한계를 노출시키는 사건이었고, 각 체제가 과연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되묻는 사건이었다.

사할린 거주 조선인 이동에 대한 규제 및 통제가 유독 문제적인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더욱이 신분을 증명해줄 국가가 부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인 상황에서 사할린 거주 조선인들은 소속이 불분명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며, 이동의 의도를 의심하는 눈초리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무고함을 증명해야만 했는데, 소설에서 이러한 정황은 이동하는 사할린 거주 조선인을 가리켜 “불량한 제삼국인”^(㉔:14), “로스케의 스파이”^(㉔:35), “트러블 메이커”^(㉔:129) 등으로 호명하는 맥락 속에서 부각된다.

『백년동안의 나그네』는 이처럼 전쟁을 기점으로 제국주의에서 냉전체제 전환되는 이행기 동안 사할린 거주 조선인의 이동이 촉발되고 또 통제되는 역사적 맥락을 이동과 역류의 서사로 형상화한다. 특히 일본 상륙 직후 수용된 귀환자 구호소에서 일본인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밀항했다는 이유로 미군 조사관에게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환기되는 기시감은 전후 냉전질서가 확산되고 강대국 간의 체제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립과 긴장의 한복판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인의 처지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에 대하여 박봉석은 하코다테 귀환자 구호소에서 자신을 심문하는 미국인 조사관의 얼굴과 사할린 홀름스크 수용소에 수용되었을 당시 그를 심문했던 러시아인 소령을 겹쳐 보고서는 “자신의 처지가 항상 똑같은 것을 의아하게 생각”^(㉔:123)하면서 “어느 나라나 하는 짓은 모두 다 똑같습시다. 우리를 이용만 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내팽개칩니다”^(㉔:130)라며 지적하는데, 이를 통해

폭로되는 사실은 현재의 이동이 강대국 간의 해계모니 쟁탈전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조선인들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매번 이동하는 위치로 내몰렸다는 것이다.

한편 전후 일본 내에서는 재일조선인을 비국민화하여 일본 밖으로 밀어내려는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1946년 9월 2일 당시 일본의 수상이었던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는 조선인을 “일본국민으로 인정해 단속”한다는 입장을 취했다.²⁵⁾ 그러다 1947년 5월 2일에는 일본 내 외국인등록령이 제정 공포되었다. 사실상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 특히 재일조선인을 단속하려는 취지로 입법된 외국인등록령의 내용 중에는 “대만인 가운데 내무대신이 정한 자와 재일한인은 당분간 외국인이라고 인정해 이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²⁶⁾ 그러가 하면 당시 일본을 통치하던 GHQ는 이 문제에 대하여 “재일한인은 외국인으로 인정되어야 하되, 치외법권은 인정할 수 없으니 일본의 모든 법령에 복종”²⁷⁾해야 한다며 일본의 입장과 거의 흡사한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 28일을 기점으로 재일조선인의 일본 국적을 박탈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인 재일조선인을 관리 단속하기 위해 외국인등록법(1953.04.28.)과 출입국관리령(1952.10.04.)이 새롭게 시행되었는데, 출입국관리령 및 외국인등록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서 소지 명령은 재일조선인을 탄압하고 강제 퇴거시키기 위한 명분과 수단으로 활용되었다.²⁸⁾

이상에서 알 수 있듯 일본은 전후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과거 제국주의의 산물인 재일조선인의 존재를 부정했는데, 이는 전전의 역사를 말소하고 전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냉전 구도 속에 일본의 영토를 새롭게 배치하고자 했던

25) 채영국, 앞의 논문, 115쪽.

26) 채영국, 앞의 논문, 117쪽.

27) 채영국, 앞의 논문, 120쪽.

28) 한편 일본이 이처럼 사할린 거주 조선인 귀환문제를 도외시키고 전후 질서 확립 과정에서 조선인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또 다른 배경에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혈통’을 기준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면서 “한인 등 구식민지민을 일본열도에서 들이지 않겠다는 순혈주의”(이연식, 2014, 「사할린한인 귀환문제에 대한 전후 일본정부의 대응」, 『동북아역사논총』 제46호, 동북아역사재단, 345쪽)에 입각한 일본 정부의 태도가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었다.

일본의 국민-국가적 욕망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²⁹⁾ 요컨대 재일조선인의 이동은 전후 냉전에 따른 국제질서의 개편과 일본 내 전후 내셔널리즘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재일조선인이 국민-국가 일본으로부터 배제되어 ‘비국민’ 내지는 ‘제삼국민’이라는 위태로운 지위로 전락했던 정황과 연동되어 있었던 것이다.³⁰⁾

『백년동안의 나그네』에서 이상의 문제를 아우르는 것은 ‘어엿한 일본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법 잠입자나 스파이 취급을 받으며 조선으로 강제송환되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재길의 항변이다. 소설의 구성상 상권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이재길의 발언은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이어지는 여정에 대한 일종의 소략이기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³¹⁾

재일 조선인한테는 1947년 5월에 ‘외국인 등록령’이라는 것이 공포되었습니다.

-
- 29) 이러한 정황과 관련하여 강상중은 일본의 “전후 내셔널 히스토리는, 이민족을 배제하고 그러한 배제에 이르는 역사를 망각하는 것으로 겨우 성립할 수 있었”으며, 전후 일본의 시작은 “국민의 혼성적인 편성을 ‘내지 일본주의’로 폭력적으로 수축시키면서 식민지 제국 이전으로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이를 가리켜 “현저한 (식민지) 제국의 건망증”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다(강상중, 이규수 역, 2005, 「국민의 심상 지리와 탈국민의 이야기」, 고모리 요우이치 역 음, 『내셔널 히스토리를 넘어서』, 삼인, 190-196쪽 참조).
- 30) 패전 후 일본에 잔류하는 조선인을 부르는 대표적인 호칭으로는 ‘제삼국민’이 있다. 사카야키 아키토에 의하면 제삼국민이라는 호칭은 단순히 일본인과 법적 지위가 다른 조선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교섭의 당사자성을 부정해야만 하는 존재로서의 ‘제삼자’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제삼국민’이라는 기표는 ‘제삼국민’이라고 호명되는 존재들이 만들어낸 역사를 은폐하고 오로지 “‘제삼국민’을 둘러싼 부도덕성(흉악성)과 외부성” 강조하는 ‘제삼국민 담론’을 파생시켰는데, 이를 통해 일본은 일본 정부로 향한 사람들의 비판과 불만을 ‘제삼국민에게 돌림으로서 내부의 안정을 꾀하고자 했다(사카야키 아키토, 박광현 외 역, 2020, 『갯터미 전후공간론』, 이숲, 118-128·264쪽 참조).
- 31) 『백년동안의 나그네』는 형식 및 내용의 측면에서 상권에서는 이동이, 하권에서는 억류가 소설의 의미를 추동하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그랬을 때 소설의 전체 구성을 이동 중 생겨난 질문과 문제의식(상권)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새로운 인식을 도출(하권)하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물음과 응답의 구조를 가진 『백년동안의 나그네』에서 상권의 마지막이 이동에 대한 이재길의 찬평이었다면, 하권에서는 고백을 통해 이재길의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돌파함으로써 그의 말이 책의 윤리를 결여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주제적인 측면에서도 『백년동안의 나그네』의 문제의식은 상권에서 천착한 ‘재일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하권에서는 그것의 연장 선상에서 ‘재일은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하는가’로 심화해 가는데, 그렇다고 할 때 이재길의 발언은 하권에 이르러 그 허위성과 사유의 빈약성 때문에 비판되기는 하지만, 서사의 문제의식이 구축되는 가운데 갈등과 긴장을 심화하고 의미 생성으로 이어지는 질문을 촉발하는 한 축이라는 점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점령군은 재일 조선인한테 이런 칙령을 강요해 놓고, 이번에는 쟁싸게 칼끝을 돌려서 우리도 ‘외국인’ 취급을 한 것이 진상입니다. 게다가 우리 경우는 ‘불법’으로 일본 귀환선을 타고 온 ‘잠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파이’라는 누명까지 씌웠습니다. 미국이 소련과 사이가 나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하게 덤터기를 쓴 것이지만, 정말이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

놈들의 목적은 두 가지 뿐입니다. 하나는 국경지대였던 사할린에서 온 우리한테서 그쪽 실정을 알아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목적인데, 온갖 구실을 붙여서 우리를 일본 밖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국외로 추방하면 그 소문이 사할린으로 들어갈 테고, 그러면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애써 일본으로 건너가봤자 거기에 살게 해주지 않는 모양이라고 생각해서 밀항을 단념할 게 아니겠습니까. (…)

그럼 왜 우리를 이렇게 강제로 송환하는가? 우리가 재일 조선인과 합류하면 일본의 정세가 더한층 복잡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일 조선인 연맹이라는 것이 최근에는 거류민단이라는 것도 생긴 모양입니다만, 어쨌든 이 단체가 ‘해방된 민족’이니 ‘민족적 권리’니 하며 떠들어대고 있는데, 불에 기름을 붓는 짓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양키의 진짜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㉔:335-337)

가라후토 시절 나이부치 탄광의 조선인 노무 반장이었던 이재길은 조선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선인 탄광 노무자들을 악랄하게 착취하던 인물이다. 또한 그는 일본 패전 후 가라후토에서 탈출하기 위해 일본인 여성과 결혼했으면서 일본에 도착하면 기회를 봐 임신한 아내를 버리고 도망칠 생각을 하는 파렴치한이기도 하다. 이처럼 이재길의 인물 됴됨이는 잠깐만 살펴보더라도 부정적 인물로 비치기에 충분하지만, 이른바 “사석(捨石)”(㉔:68)의 정서라고 하는, 민족이나 국가에 귀속되지 못한 채 떠돌 수밖에 없는 자들의 정동을 표출하는 한편으로, 그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국가나 민족의 의미를 되묻는다는 점에서 문제적 인물임에 분명하다.

이재길은 생존을 위해 밀항을 택했던 자신의 선택이 제국주의에서 냉전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두고, 그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나고 반문한다. 또한 그는 매번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언제나 조선인이 피해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토로한다. 이 억울의 정동 속에서 그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편익적 논리를 개발하기에 이르는데, 이는 “일본에 있는 우리는 조선 민족이지만 국적으로는 일본인입니다. 우리는 자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 금방 ‘나는 조선인’이라느니 ‘우리 조선인은…’하고 말하는데, ‘민족’에 대해 말할 때는 확실히 그 말이 옳습니다. 하지만 ‘국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국적으로는 ‘일본인’입니다. 이걸 틀림없는 사실입니다”(㉔:335)라는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이재길의 말은 언뜻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현재의 상태를 초래한 역사를 망각하지 않는 이상 그의 말처럼 현실에서 조선인이면서 동시에 일본인이 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유령’일까요? 아니면 ‘일본인’이나 ‘조선인’일까요?”(㉔:335)라는 질문으로 계속해서 회귀한다. 이처럼 불신과 회의로 가득 찬 이재길의 본심은 사실 말보다 행동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재길은 이동 내내 도주의 기회를 엿보는데, 이처럼 이재길이 계속해서 도주를 시도하는 까닭은 식민지 이산의 길을 역으로 되짚어가는 지금의 여로가 과거 그가 일본으로 건너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인이 되는 길로도, 조선인이 되는 길로도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예감하기 때문이다.

Ⅲ. 이동이 초래한 ‘재일’의 위치와 국민-국가 초월 가능성

『백년동안의 나그네』에서 이동은 이동 과정 중 계속해서 변화하는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 사이에 ‘엇갈림’의 감각을 만들어 낸다. 한편 그러한 엇갈림을 조정하기 위한 인식론적 계기를 제공하는 만남을 촉발하기도 한다. 인물은 자신이 세상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인식 속에서 엇갈림의 감각을 느낀다. 그리고 이러한 엇갈림의 감각은 인물이 존재 탐색의 여로에 천착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자신의 존재가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게끔 고무한

다. 그리하여 『백년동안의 나그네』에서 이동이 초래한 일련의 인식론적 성찰은 국민국가의 정상성을 비판적으로 탐문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³²⁾

『백년동안의 나그네』에서 이동은 가라후토에서 일본제국의 신민으로 살아가던 조선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활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라는 조건과 밀착되어 있었음을 깨닫게 하고, 나아가 그들을 둘러싼 과거의 허위의를 점차 탈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자신들의 이동이 제국주의에서 냉전으로 이어지는 세계사적 모순으로 인해 야기된 것임을 스스로 인지해 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처럼 『백년동안의 나그네』에서 이동을 통해 인물의 인식 지평이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옮겨가는 중에 그것을 추동하는 내적인 원리는 반성적 사유이다. 이상을 고려한다면 이동은 서사의 윤리가 형식으로서 외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랬을 때 박봉석의 내면에서 펼쳐지는 독백은 이동의 그러한 측면을 간파한다.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제각기 과거를 짊어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였다. 열차는 완행이긴 하지만, 선로 위를 달리고 있는 한은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도중에 탈선하거나 충돌하는 일이 없다면 그게 당연한 일이고, 머지않아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설령 정해진 시간보다 훨씬 늦게 도착한다 해도 언젠가는 도착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놀랄 만큼 모르고 있었다. 당장의 일만 해결되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32) 이상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서경식은 엇갈림의 감각이 출현하는 조건으로 재일조선인의 소외문제에 주목한다. 그는 “재일조선인이 스스로 경험한 차별이나 소외의 원인을 깊이 파악하여 그에 저항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표명”한다고 말하면서 그와 같은 자기 표명을 통해 형성된 “재일조선인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기존 “국민국가의 틀을 날카롭게 묻는” 토대가 된다고 강조한다. 이상의 사유를 통해 서경식이 도출해내는 ‘조국’ 의식이 흥미로운데, 그가 조국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영역, 토지, 혈통, 혹은 고유의 문화나 전통이라기보다 오히려 모든 정치적 조건들 아래서 선택되는, 미래를 향한 태도의 결정”을 가리킨다. 그로부터 서경식은 “조선인은 근대 시기 내내 자신들이 온전히 동일화할 대상으로서 국가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으며, “그런 조선인이 보기에 국가가 자연도 본질도 아니라는 것, 국가가 구성물이라는 것은 당연”하다는 실감에 도달하게 되는데, 서경식의 이와 같은 사유는 본 논문의 문제의식을 심화해 나감에 있어 중요한 참조점 중 하나이다(서경식, 2006, 『난민과 국민 사이』, 돌베개, 142-232쪽 참조).

일희일비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곧 종착역에 도착하면, 그들을 호송하는 일본인 경찰관이 무슨 지시를 내릴 것이다. 그 지시에 암전히 따르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해도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내일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어제까지의 일을 생각하며 굴욕감에 잠길 뿐이다. (㉔:121-122)

박봉석의 감각 속에서 이동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은 부끄러운 과거와의 대면으로 직결된다. 박봉석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까닭은 그가 이동 자체에 내포한 윤리적 성격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그는 이동이 촉발하는 반성과 성찰을 회피하고 무지의 상태에 머무르려는 욕망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그 까닭은 반성을 통한 깨달음이 그에게 ‘굴욕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이동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하지만 이동에 수동적으로 반응함으로써 반성적 주체의 자리에서 물러나려는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동은 계속해서 새로운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박봉석의 기대를 배반한다.

그중 아오모리에서의 재일조선인 무리와의 만남은 박봉석이 민족이라는 개념에 의문을 갖게 된 첫 번째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열차가 아오모리역에 정차하자 한 무리의 조선인들이 강제 송환 중인 그들에게 다가와 조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먹으라며 특산품인 아오모리 사과를 건넨다. 이 만남은 박봉석에게 ‘동포’를 만났다는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한편으로, 내지의 조선인들과 사할린에 있었던 자신들의 처지가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게끔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박봉석은 이 만남을 두고 “생각지도 않은 동포와의 만남에 저도 모르게 감동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씁쓰레한 기분이 섞여든다”(㉔:65)라는 감상을 표현하는데, 이것이 그의 솔직한 감정이다. 더욱이 박봉석이 아오모리에서 만난 ‘동포’들을 ‘그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운이 좋은 사람들”(㉔:65)에 대한 “희미한 질투심이 꿈틀거”(㉔:65)리는 것을 느낄 때, 자신을 해방민족이라고 칭하는 ‘그들’과 강제 송환 중인 박봉석 일행 사이에 쉽게 넘어설 수 없는 차이가 가로놓여 있음에 분명하다.³³⁾

아울러 자신과 그들이 다르다는 차이에 대한 지각은 ‘해방’ 그리고 ‘민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촉진한다. 박봉석은 사실상 자신이 “일본 내지에 있는 조선인들의 실상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㉔:65)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강제 송환 중인 자신과 그들이 ‘민족’이라는 단일한 카테고리로 묶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느닷없이 ‘해방된 민족’이라는 말을 들어도 나는 어쩐지… 안 그래”(㉔:65)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현재 처지와 ‘해방된 민족’과의 거리감을 실감한다. 또한 박봉석은 ‘해방된 민족’이라는 거창한 호칭에 회의감을 드러내며 “해방된 민족이라면 강제 송환당하는 일은 없을 거야”(㉔:66)라고 자조한다.

그렇다면 내지의 조선인과의 다른 해방된 민족도 아닌 박봉석 자신은 누구인가? 이 같은 질문은 박봉석으로 하여금 그의 과거가 있는 사할린을 되돌아보게 한다. 그 결과 그는 사할린에서조차 분열의 징후가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자각한다. 박봉석의 그와 같은 자기발견의 드라마는 패전 직후 협화회 회장이었던 구지마 구장으로부터 할복을 강요받았던 일화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러시아가 사할린을 점령한 직후, 구지마 구장이 박봉석을 불러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조선인 탓이니 협화회 간부인 그가 책임지고 할복해야 한다고 했던 일을 두고 박봉석은 “일본인도 조선인도 모두 함께 폐하의 적자”(㉔:145)로서 “대동아공영권을 위해 분발”(㉔:145)해 왔으며 항변하지만, 한편으로 “구장은 국가를 등에 업고 있지만”(㉔:149) 자신에게는 “나라가 있을 턱이 없다”(㉔:149)는 생각이 스쳤었던 것을 떠올린다. 박봉석은 이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이 여태껏 국가를 가져본 일이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박봉석의 이 같은 인식은 단순히 기민(棄民)의 정서로 환원되지 않는다. 국가에 속한 적이 없기에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적도 없다. 박봉석은 이 같은 인식의 전환을 발판으로 삼아 민족-국민-국가로 경계지어 지는 영역 바깥에서 자신

33) 손희주는 같은 민족을 뜻하는 ‘동포’라는 개념이 민족국가라는 이데올로기를 지탱하는 한편으로, 국가적 개발과 이익의 수단으로 동원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손희주, 2011, 「해의동포를 겨냥한 초국가적 정책」, 비교역사문화연구소 편, 『근대한국, '제국'과 '민족'의 교차로』, 책과함께, 367-368쪽 참조). 그렇다면 아오모리에서 ‘동포’를 만난 박봉석이 느끼는 불편함은 ‘동포’라는 기표로부터 연상되는 민족(=국민)국가에 대한 불화의 감각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 존재를 성찰할 수 있는 사유의 거점을 확보한다. 『백년동안의 나그네』는 그러한 거점을 구체적인 공간으로 형상화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박봉석이 공들여 제작했던 방공호이다. 박봉석은 소련의 공습에 대비해 튼튼한 방공호를 짠데, 그런 그를 두고 주변에서는 ‘비국민’이라든지 “자기만 살아남으려 한다” (㉔:152)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방공호를 짰고, 1945년 8월 20일 소련의 가라후토 침공 당시 방공호 덕에 살아남았다. 국가는 박봉석의 의도를 의심하고 전쟁의 사기를 떨어뜨린 위험이 있는 그의 행동을 감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다며 방공호를 판 박봉석의 끈질김 이면에는 비록 분명한 형태는 아닐지라도 국가에 대한 불일치의 감각이 자리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었으리라 짐작해볼 직하다.

한편 박봉석이 방공호에 받아들인 민족과 계급을 초월한 다종다기한 구성원들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신념은 결실을 맺는데, 민족, 국가, 계급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마치 코스모폴리탄 집합소처럼 돼버린 방공호 속 풍경이 바로 그것이다. 더불어 박봉석이 방공호를 통해 표현하려 한 것은 인간이란 존재를 국가에 귀속된 국민으로 환원해 버리다가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국가폭력에 대한 위화감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박봉석에게 방공호는 단순히 안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라는 울타리 밖에서 인간의 존재 방식을 실현해 보이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박봉석은 사할린으로부터 이와 같은 경험을 길어올림으로써 민족이나 국가라는 틀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현존을 발견한다. 나아가 박봉석의 이 같은 발견은 자신을 둘러싼 현실의 구체적인 실상과 접촉함으로써 한층 더 심화한 문제의식으로 발전한다.

저쪽 승객은 땀투성이가 되어 서 있고, 이쪽 사람들은 느긋하게 좌석에 앉아 있다. 왜 이런 경계가 생겼는지를 어른들은 알고 있었다. 아이들도 나중에 눈치챘지만, 승강구에 영어와 일본어로 승차금지 팻말이 걸려 있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 차량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팻말에는 더 작은 글씨로 위반자는 처벌한다는 문구가 역시 영어와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부러움과 시샘과 미움이 뒤섞인 일본인들의 시선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 찌르는 듯한 시선은 열차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강해졌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온갖 굴절된 감정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증오의 표적이 되어 있는 듯한 심리적 압박감을 점점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감정이 오늘은 어제에 비해 훨씬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적개심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적개심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위험한 수준까지 고조된다. (㉔:231-232)

박봉석 일행이 탄 열차가 어떤 역에 도착했을 때, 초췌한 행색의 일본인 무리가 박봉석 일행이 수용된 ‘점령군 전용차’ 칸 쪽으로 몰려든다. 그 일본인들은 전쟁 후 고향으로 귀환하는 사람들로, 제대군인에서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까지 구성이 다양하다. 일본인들은 점령군 전용차 칸에 빈 좌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들여보내 주지 않자 항의한다. 이에 박봉석 일행을 연행하는 도무라 경보부가 “이 차량은 점령군 전용차라서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이 차량은 점령군의 명령으로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이진 명령이니깐요. 점령군 사령부 명령으로 이 사람들을 연행하고 있습니다”(㉔:249)라며 제지한다. 점령군이라는 말에 일본인들은 태도를 누그러트리지만, 박봉석 일행을 향해 “증오와 불만이 뒤섞인 강렬한 시선”(㉔:249)을 쏘아 보내는 것은 멈추지 않는다. 그들이 이처럼 행동하는 까닭은 “제삼국인이 자기들과는 천국과 지옥처럼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굴욕감으로 가득 채우고”(㉔:249-250) 있기 때문이다.

민족이나 국민을 기준으로 사람들 사이에 분할선이 그어지는 상황 속에서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반목은 깊어져 간다. 조선인과 일본인들이 열차 내 점령군의 존재를 의식하는 장면을 통해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 냉전체제로 인한 대립 구도 속에서 미국을 위시한 자유주의 진영의 방패막이가 됨으로써 존립을 도모해야 했던 나라의 국민이었다는 사실이 환기되기도 하지만, 국가 간의 위계를 전제로

작동하는 이와 같은 권력은 사람들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하기보다는 차이를 부각하고 차별과 분열의 정치를 작동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한편 『백년동안의 나그네』는 박봉석의 막내아들인 박진호가 열차에서 만난 부랑아들을 통해 이상의 문제를 타계하기 위한 더 깊은 사유로 한 걸음 더 다가간다. 박진호는 열차에 몰래 올라탄 “전쟁고아”⁽³³⁾:270) 패거리에게 매료된다. 달리는 차창 밖으로 대공습으로 인한 폐허의 풍경이 펼쳐지는 가운데, 전쟁이 만들어 낸 이 아이들은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서 잿더미에 뒤덮인 폐허의 허무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일본을 이끌어 갈 다음 세대로 그려진다. 과거도 미래도 없이 현재만을 살아가는 그들에 대한 감상은 “소년에게 과거라는 것은 완전히 쓸모가 없어진 가방이나 연필 같았다. 과거의 흔적을 모두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이 소년처럼 현재에만 살고 있는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³⁴⁾:273)고 하는 박진호의 말을 통해 전해진다. 전후의 폐허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들은 과거 잘못에 대한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다. 그들은 어른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질서나 도덕을 불신하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현재를 살아가면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덕과 질서를 쓴다. 그러나 재일은 그럴 수 없다. 자신들의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과거를 끌어안고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그리고 이동은 그것을 촉구하는 계기이다. 그러한 이유로 부랑아의 삶은 재일의 대안이 될 수 없다.³⁴⁾

34) 한편 『백년동안의 나그네』에 등장하는 폐허가 된 도쿄의 풍경은 전후 일본이 잿더미 속에서 부흥을 이뤄냈다는 신화 속에서 주로 갱생이나 재생의 이미지로 출현하고는 한다. 그랬을 때 잿더미나 폐허는 “공백의 기호”로, “피해자로서의 일본인과 전후 일본의 기원을 의미”하는 “국가적 경관”으로서 출현한다. 이처럼 잿더미라는 표상은 전전의 전쟁 가해자로서의 일본과 피해자성을 주장하는 전후 일본 사이의 연속성을 은폐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로부터 잿더미를 배경으로 태어난 새로운 인간 유형에 대한 거리두기도 가능해진다. 사카사이 아키토는 전쟁 중 ‘사상’이 강조되었던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전후의 ‘신체’나 ‘야비한 생명력’이 새로운 시대의 윤리로 급부상했거나 그러한 새 시대의 윤리가 어느새 ‘패전 국민의 내셔널 아이덴티티’로 회수되어 버렸던 양상을 추적한다. 이를 통해 사카사이는 전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고 새 시대의 윤리를 장착한, 이른바 ‘잿더미 세대’라고 불리는 새로운 세대가 공습으로 불타버린 폐허로부터 일문을 재건할 다음 세대로 호명될 때, 전쟁 책임을 망각한 전후 일본 사회의 책임을 무마하는 방식으로 동원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사카사이 아키토, 앞의 책, 15-16·21·194쪽 참조). 하지만 재일은 그와 반대로 전전과 전후의 연속성을 상기시키는 불편한 존재로서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렇기에 박진호가 나아가려는 길은 부랑아 소년이 나아가려는 길과 본질적으로 다른 방향을 향해 뻗어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재일이 나아가야만 하는 길은 어떠한 길인가? 이 질문은 박봉석의 열차칸 비유 속에서 심화한다. 박봉석은 도무라 경보부와 대화하던 중 아이를 안고 있던 일본인 승객을 자신들이 있던 열차칸에 들이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털어놓는다. 또한 그는 자신들은 기차 안에 “편안히 앉아 있고 일본인 승객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서”^(㉔:17)있어야만 했던 그 상황을 두고 ‘고통’스러웠다고 말하면서 그 상황에서는 마치 자신들은 일등칸에, 일본인들은 삼등칸에 타고 있는 듯 느껴졌다고 고백한다. 동시에 그는 ‘우대’로 비치는 그 상황이 실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을 강요당하고 있을 뿐이고, 이걸 피차 불행한 상황일 뿐”^(㉔:18)이었다고 지적한다. 그렇기에 그는 “어쩌면 삼등칸에 탄 일본인보다 우리가 훨씬 비참한 입장이었는지도 모른다”^(㉔:18)고 말한다. 기존의 차별적 질서에 대한 비판과 성찰 없이 그것을 현실을 이해하는 개념틀로서 그대로 답습할 경우 차별과 반목은 영원히 불식되지 않는다. 열차 좌석의 등급을 표시하는 용어인 일등, 이등, 삼등, 사등석에 비유하여 민족이나 계급, 국민과 비국민을 구분 지을 때 사람들은 다시금 그러한 기준에 의해 구획된 배치에 종속되어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박봉석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직면하여 박봉석은 민족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 모두를 받아들였던 사할린의 방공호로 다시금 시선을 돌린다. 그리하여 그는 “일등’도 ‘이등’도, ‘삼등’도, ‘사등’도 전부 다 우울한 얘기 아닙니까? 인간은 숫자가 아니니까요”^(㉔:32)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IV. 하리오수용소 경험과 고백을 통한 ‘재일’의 형상화

『백년동안의 나그네』의 이동이 자기발견의 여로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소설이 형상화하는 여로는 기본적으로 수난과 박해의 성격이 짙다. 그리고 여로의 이러한 성격은 나가사키에 도착해 하리오수용소로 걸어서 이동하는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형상화한다. 특히 오랜 여행으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일행이 목적지에 도

착하는 것만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즈음 박봉석의 두 딸이 주문처럼 외우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여로의 그러한 측면을 한층 더 환기한다. 해석하면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의미의 이 구절에는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리스도의 비탄과 고독이 새겨져 있다.³⁵⁾

이처럼 고난과 탄식의 여로 끝에 조선인 일행이 당도한 곳은 하리오수용소³⁶⁾였다. 그런데 이 하리오수용소에 관해서는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백년동안의 나그네』에서 언급되는 하리오수용소는 후에 오무라수용소로 명칭이 변경(1950.12.28.)되는 외국인 임시수용소로, 해당 시설의 목적은 출입국관리령을 어긴 외국인을 추방함으로써 일본 내 ‘불법화’된 이동을 통제하고, 재일조선인을 일본 사회로

35)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신을 향해 부르짖는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인데, (국제기독교성서공회 편, 1998, 「마르코복음」 제 13-15장, 『해석판 공동번역 성서』, 일과놀이, 105-114쪽).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 대목은 인간의 원죄를 씻기 위해 순결한 희생양으로 선택된 예수가 자신의 죽음을 이행하는 마지막 순간에 부르짖는 인간적인 절규로 해석되곤 한다.

36) GHQ는 1945년 9월 22일을 기점으로 해외에서 일본으로 귀환하는 일본군 및 민간인 그리고 조선으로 돌아가려는 조선인 등을 수용하는 임시수용소를 설치했다. 이후 1946년 6월 12일 자로 사세보 인양원호국 귀환자수용소 내에 별도로 하리오수용소를 설치했는데, 이때부터 재일조선인 재입국자들은 사세보 하리오수용소에 따로 수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50년 4월 3일을 기점으로 본래 인양원호국 소속이었던 하리오수용소가 법무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같은 해 10월 1일에는 구 일본 해군 하리오해병단 시설을 개조해 외무성 산하 하리오입국자수용소를 설치했으며, 마찬가지로 같은 해 12월 28일에는 해당 수용소의 명칭을 오무라입국자수용소로 개칭한 뒤, 오무라 제21 해군 항공창 본관으로 이전했다. 이처럼 하리오수용소의 연혁을 살펴봄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목은 하리오수용소가 처음 설치될 당시에는 인양원호국 소속의 임시기구에 불과했지만, 이후 해당 기관이 1950년에 법무부 소속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재일조선인 강제추방 법제화가 함께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지적할 수 있는 점은 『백년동안의 나그네』의 시간적 배경인 1947년 당시에는 재일조선인 및 조선인 재입국자를 일본 밖으로 추방할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HQ 및 일본이 “구두명령에 따라 조선인 귀환자수용소에 임시 구금하고 조선으로 추방”(진갑생, 2015, 「오무라(大村)수용소와 재일조선인의 강제추방 법제화」, 『역사연구』 제28호, 역사학연구소, 180-184쪽 참조)하는 관행이 성행했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 주목한다면 『백년동안의 나그네』에서 묘사되는 하리오수용소가 국민-국가의 영토 내에 초법적 영역을 구축하여 국가에 위반하는 존재들을 법-영토 바깥에서 비체화함으로써 국가의 통치력을 발휘하고자 했던 국가폭력의 일면이었다는 사실을 간파할 수 있다. 그런데 『백년동안의 나그네』의 하리오수용소 풍경을 통해 포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국가폭력의 발현 양식은 국가의 일반적인 통치전략으로서 어떤 특정 시기에 한정하여 문제가 되었던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국가가 존속하는 이상 지속적으로 제기될 문제이다. 따라서 하리오수용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그 자체로 국가라는 형식 자체에 일반적인 형태로 내포한 국가폭력의 실상을 문제화하는 것이 다름 아니다.

부터 축출하는 데 있었다. 또한 하리오수용소는 “제국의 ‘신민’이었던 조선인이 ‘외국인’으로 뒤바뀐 현실을 자명한 것으로 만드는 장치, 그들의 허가받지 않은 이동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조선인에게만이 아니라 일본인에게도—전후의 ‘국경’을 신체감각에 각인³⁷⁾하는 장치였다. 이에 더해 패전 후 일본이 국민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자국의 역사를 은폐하고, 단일민족 신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고안한 통치 장치로서 “‘단일민족 국민-국가’ 일본의 법과 영토를 침범하는 조선인을 격리 수용하고 외부로 방출해야 할 존재³⁸⁾’ 낙인찍어 “식민지/제국의 역사와 그 시간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범죄자 퇴치’의 문제로³⁹⁾ 전치해 버리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본이라는 국가가 제국에서 국민-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은폐하고 부정하고 싶었던 재일조선인의 존재를 국민국가의 영토로부터 차단하거나 방출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던 통치기구로서 하리오수용소의 기능에 주목한다면, 제국주의의 욕망과 국민-국가의 욕망이 교차 혹은 교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로서 하리오수용소의 의미를 재맥락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하리오수용소를 통해 국가의 통치성이 발현되는 양상은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억류-배제하여 “‘잘못된 장소에 있다(場違い)’⁴⁰⁾ 감각을 환기함으로써 ‘비국민’이라는 처지를 수용하게끔 강제하는 한편으로, 재일을 비국민, 범죄자, 밀항자, 도망자, 불법체류자 등 국민국가 영토 내에 존재하는 ‘내재하는 외부’ 내지는 ‘구성적 외부’로 만들어 국민-국가-영토의 결속을 공고화하는 것이었다.⁴¹⁾

37) 차승기, 2014, 「수용소라는 안전장치-오무라(大村)수용소, 폴리스, 그리고 잉여」, 『한국학연구』 제32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320쪽.

38) 차승기, 위의 논문, 325쪽.

39) 차승기, 위의 논문, 325쪽.

40) 이정은, 2014, 「‘난민’ 아닌 ‘난민수용소’, 오무라(大村)수용소-수용자-송환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30집, 한국사회사학회, 325쪽.

41) 하리오수용소가 재일의 존재를 범법화하려는 움직임은 제도적 차원에서도 이어졌다. 구체적인 실상을 살펴보면 일본 재판소는 재일조선인 재입국자나 ‘밀항자’들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령 위반에 덧붙여 2개 이상의 형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가중된 죄명은 주로 ‘주세법 및 방조, 공갈,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소유 및 방조죄’(전감생, 앞의 논문, 198쪽) 등 사회의 기강을 해치고 치안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되는 경범죄들

그랬을 때 하리오수용소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동원했던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바로 '억류'와 '양자택일'이었다.

왜 이대로 일본에 남아야 하는가. 이 일본 어디가 좋아서 이 땅에 머물지 않으면 안되는가. 또다시 이 객지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 쳐도, 이 나라는 우리의 고향을 얼마나 이해해줄 것인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한 채, 그는 자신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가족을 택할 것인가 고국을 택할 것인가. 어쩔 수 없는 양자택일의 결단을 강요받고 결국 일본에 남았지만, 그것은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고 새로운 고통의 시작을 암시하고 있을 뿐이다. (㉞:336)

『백년동안의 나그네』에서 하리오수용소는 조선인들에게 추방과 억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장소로 묘사된다. 국가의 요구를 수용하면 국민-국가 일본에 흡수되어 그 존재가 소멸된다. 반면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억류로 인한 예외상태가 지속되거나 비국민이 되어 국가의 영토 밖으로 추방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년동안의 나그네』는 하리오수용소를 통해 관철되는 국가폭력에 대항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론으로 '고백'을 제시한다. 두 가지 선택지 중 반드시 하나를 골라야 하고, 어느 것을 고르더라도 자신의 존재가 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백하는 존재는 통해 자신의 복잡성을 드러냄으로써 그러한 문제적 상황을 돌파한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체화한 인물로 보이는 주두홍은 '고백'이 "인간을 드높이는 행위"(㉞:313)라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고백에 이르기 위해서는 비극을 치뤄야 한다고도 언급하는데, 여기서 그가 말하는 비극이란 "대립하는 한 인간의 존재"(㉞:313)로서 자기 자신을 대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백은 인간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복잡성을 심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은 국경 내 모든 존재를 국민으로 환원해 버리는 국민-국가의 의지가 관철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그런가 하면 고백은 그 현현 방식이 이동과 상동성

이었고,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하리오수용소가 선량한 국민으로부터 불량한 제삼국민을 분리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을 이루는 듯 보이는데, 이동이 궤적을 남김으로써 시간적인 연속을 드러내듯 고백 또한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시간성 속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백년동안의 나그네』에 등장하는 인물 중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무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없다. 그들의 삶은 다양한 수준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라는 현실과 접촉해 있었고, 그러한 과거는 사람들에게 있어 죄의식의 원천이 된다. 고백은 이처럼 식민지 지배라는 현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인물들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직시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인물은 자신들이 무구한 희생양이 아니라 원죄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정초해냄으로써 존재의 윤리를 획득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처럼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는 존재로서의 재일은 국민 아니면 비국민이라는 매우 한정적인 존재 양식만을 허용하는 국민-국가 시스템에 회수되지 않는 초과분을 통해 자신의 진정성과 개별성을 드러낸다.

이상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주목하고 싶은 인물은 주두홍이다. 주두홍은 1943년 강제 징집되어 2년간 사할린에서 탄광 노무자로 노역하다가 일본 패전 직후 탄광에서 탈출한 인물이다. 그는 탄광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일본인 감독관을 살해하고 그로부터 2년간 소련을 헤매다가 일본인 귀환선에 섞여 사할린을 탈출한 이력을 갖고 있다. 한편 주두홍이 노역했던 탄광의 조선인 노무 반장이었던 이재길은 주두홍의 과거를 빌미로 은근히 협박하며 자신의 도주계획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다 하리오수용소에 도착한 뒤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던 이재길이 도주를 시도하다 그만 죽어버리고, 주두홍은 이재길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며 괴로워한다.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것은 ‘사실’과 ‘진실’의 역전이다. 주두홍은 이재길의 죽음에 관해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진실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이재길의 죽음은 겉보기에 사고사처럼 보이지만 주두홍이 보기에 이재길 죽음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 이처럼 사실과 진실이 유리된 상황에서 세계를 윤리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은 다름 아닌 고백이다. 주두홍은 고백을 통해 사실과 진실의 윤리를 극복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주두홍에게 고백의 최대의 동기이자 목표가 되는데, 윤리의 과잉으로까지 보이는 주두홍의

귀국 후 행적은 고백이라는 존재 양식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두홍은 하리오수용소에서 고향으로 귀환한 뒤 경찰소를 찾아가 자신이 사할린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한다. 그의 말에 경찰관은 “시대착오”(㉔:311)적이라고 하면서 “‘8·15’ 이후에 동포를 죽였다면 당연히 구속되었을 테지만, 이 살인은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㉔:311)며 무시한다. 이처럼 국민-국가 앞에서 주두홍의 고백의 윤리가 무력화되고 감상주의나 결벽증 정도로 치부되며 희화화될 때, 국민-국가라는 형식 속에서는 주두홍이 실현하고자 하는 고백의 윤리가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이 실감으로 다가온다. 국민-국가 내에서의 주두홍의 초과된 윤리 감각은 과잉이나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목에 이르러 국민-국가라는 한정된 영역에서는 재일의 윤리 감각이 실현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한편으로, 재일의 윤리 감각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국민-국가의 ‘망각’과 주두홍의 기억-고백 사이에 형성된 극적인 긴장과 대립은 『백년동안의 나그네』에서 매우 인상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을 통해 구체화한다.⁴²⁾ 남한으로 귀환하고 3년이 흐른 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징집 명령이 내려지자 주두홍은 국군으로 참전한다. 주두홍이 국군으로 참전해 전쟁을 수행하던 중 남한강 지류의 베타 지역에서 국군과 인민군이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주두홍의 부대가 인민군이 크게 패한 현장을 지켜보는 가운데, 적군의 시체 더미에서 두 명의 패잔병이 몸을 일으켜 달아나기 시작한다. 이를 발견한 국군 중 누군가가 그들을 향해 발포하려는 찰나, 주두홍이 자신의

42) 한편 서사적 측면에서 볼 때 주두홍의 행적이 전달되는 방식이 매우 독특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귀국 후 주두홍의 행적은 그가 하리오수용소에서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후, 3년 뒤인 1950년으로 시점을 옮겨 후일담의 형식으로 독자에게 전달되는데, 서사의 진행상 주두홍의 행적이 후일담의 형식으로 서술되기 바로 직전까지의 시간적 배경이 1947년 하리오수용소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갑자기 1950년으로 시점을 옮겨 주두홍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와 같은 서사의 흐름은 다소 갑작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전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와 같은 전개는 서사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과 개입의 여지를 낳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주두홍의 일화를 전하는 과정에서의 갑작스러운 장면 전환과 서사적 시간의 비약은 국민-국가 만들기라는 ‘마스터플롯’과 국민-국가를 전제로 전개되는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대항적 플롯을 형식적으로 구현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주두홍의 일화를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이러한 서사적 실험은 국민-국가를 자연화하는 지배적 인식에 대한 낯설게 하기를 의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몸을 던져 총알을 막는다. 그렇게 적군을 구하려다 총에 맞은 주두홍은 그대로 전사하고 만다. 이처럼 적군 병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진 주두홍의 최후는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 용납될 수 없는 죽음, 상식에서 벗어난 기묘한 죽음이다. 그러나 국가라는 휘장을 걷고 같은 장면을 다시 들여다보면 사태의 다른 측면이 부각된다. 이 경우 주두홍의 죽음은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폭력과 기만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의 폭력적 기원을 추궁한다. 이처럼 죽음으로 증명한 주두홍의 고백의 사상은 국민-국가가 한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국가를 초과한 주두홍의 고백의 사상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봄 직한 것은 '민족'이다.

주두홍의 죽음은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가 민족상잔이라는 폭력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런데 주두홍이 고백의 사상을 통해 관철하고자 했던 윤리는 국민-국가와 직렬적으로 연결되는 좁은 의미의 민족과는 다른 어떤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한 단서는 “우리 민족은 ‘민족’이라는 전체의 호칭 속에 자신을 가두기 전에, 우선 개인으로서 자신의 과거를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지 않는 한 위선의 역사가 시작되어, 미래에 지울 수 없는 화근을 남기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300)라고 하는 그의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두홍에게 민족이라는 개념은 개인과의 긴장 속에서만 의미를 획득한다. 요컨대 민족이라는 기표의 전체주의적 속성을 경계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장 국민-국가의 정당성을 방어하는 논리로 흡수되어 버리고 말 거라는 위기감을 주두홍은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두홍이 죽음과 고백을 통해 정초하는 민족이라는 개념은 단순하지 않다.⁴³⁾

국민-국가의 바깥에서 상상되는 민족은 어떤 형상일까? 이 질문은 이제길에 대

43) 이와 관련하여 그 자신 또한 재일인 다케다 세이지는 재일의 정체성을 이야기함에 있어 민족이 소환되는 맥락에 관해 “사실 ‘민족’으로서 일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한편으로 본국의 공동체로부터도 거부되고,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공동체로부터도 거부된다는 사실에 의해, 소위 그 아이덴티티의 불안을 부정하려는 동기에서 나타난 우리들의 위기의식의 표현”이라고 설명한다. 아울러 그는 이상과 같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민족’ 이념이 스스로의 존재를 둘러싼 껍질적함을 없애 줄 새로운 삶의 방식의 원리와,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다케다 세이지, 앞의 책, 248쪽).

한 주두홍의 모순된 평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짝패를 이룬다. 주두홍은 이재길을 두고 “이 시대의 산물”^(㉔:115)이자 “우리의 수치”^(㉔:115)라고 평한다. 그런가 하면 그는 이재길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까닭은 이재길이 “식민지 근성의 전형”^(㉔:117)으로서 “이 시대에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 생활방식을 당당하게, 참으로 파렴치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㉔:117)이다. 이 대목에 이르러 이재길의 죽음에 책임을 지는 것이 주두홍이 추구한 고백의 윤리이며 이 과정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정초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본다면, 내셔널 아이덴티티나 에스닉 아이덴티티와는 별개로, ‘민족’이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윤리적 주체의 존재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해석일 듯싶다. 요컨대 주두홍이 정초하는 민족이란 국민-국가가 호명하는 전체로서의 민족이 아닌 고백을 통해 정초된 윤리적 주체의 존재 방식인 것이다.

V. 나그네의 형상과 ‘재일’의 발자취

재일의 실존은 국민-국가 바깥의 장소를 필요로 하며, 그렇기에 재일의 실존은 그러한 장소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그렇다면 재일의 실존이 창출하는 국민-국가 바깥의 장소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상인지 질문해 볼 수 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장소는 물리적 차원에 존재하는 실재 공간이라기보다는 관념을 통해 구축한 공간에 대한 상상력을 현실의 장소에 투영시킨 심상적 형상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심상공간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한편 이처럼 재일의 실존이 창출하는 심상공간에 대한 관심은 재일의 실존이 미치는 지리적, 인식적 지평을 통해 재일의 형상을 귀납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재일이란 무엇/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랬을 때 『백년동안의 나그네』에서 그리는 재일의 형상은 ‘나그네’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상의 문제의식에 관하여 『백년동안의 나그네』에 나타나는 다양한 나그네 표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백년동안의 나그네』에는 사할린에서 일본으

로 밀항한 조선인 일행 이외에 다양한 이유 때문에 각지로 이동했던/할 수밖에 없었던 나그네의 형상이 다수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일본이 패전한 이후 사할린으로 넘어온 조선계 소련인이자 축항 콤비나트 부지배인인 김 미하일 몬테비치와 유대계 소련인으로 육군 중위인 솔로몬 마카스 사바라가 있다.

조선 이름으로 김영태인 김 미하일 몬테비치는 소련이 사할린을 점령한 이후 사할린으로 유입된 조선인 중 한 사람이었다. 몬테비치같은 조선인은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기 훨씬 전부터 러시아로 이주했거나 일본이 조선을 점령한 직후 러시아로 건너간 사람들의 후손으로, 일본의 강제징용 때문에 사할린으로 끌려간 사람이나 일본에서 사할린까지 흘러 들어간 박봉석같은 사람과는 사할린에 당도하기까지 그 이동 경로가 달랐다. 현재는 사할린이라는 한 공간에 모여있지만, 일본 지배하 사할린이 주 생활 터전이었던 박봉석같은 부류의 사람과 훗날 고려인이라고 불릴 김 미하일 몬테비치같은 사람이 연해주,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보낸 서로 다른 세월은 두 사람의 러시아어 숙련도 차이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박봉석과 김 미하일 몬테비치 사이에 유사성보다는 차이점이 부각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나 타지를 떠돌아야만 했던 박봉석과 김 미하일 몬테비치 사이에는 나그네로서 동질감이 형성되고 있으며, 그렇기에 박봉석은 “김영태가 박봉석이고, 박봉석이 김영태였다”(㉔:180)라는 생각이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한편 사바라 혹은 이반이라고도 불리는 솔로몬 마카스 사바라 육군 중위는 유대계 소련인으로 박봉석이 아들인 박준호가 사할린에서 민정서 통역으로 일할 당시 그의 상관으로 있던 사람이다. 박봉석은 사바라와의 첫 대면에서 유대인의 나라는 어디에 있냐고 질문하는데, 그의 질문에 사바라는 쾌활한 목소리로 “나라요? 지금은 없습니다”(㉔:170)라고 대답한다. 박봉석은 “나라가 없는데도 쾌활하지 짝이 없는”(㉔:170) 사바라의 태도에 감탄하는 한편으로 나라가 없는 그의 처지를 동정해 마지않는다. 첫 만남 후 사바라 내외가 박봉석의 집에 세 들어 살게 되고, 그러던 중 과거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에 대한 게페우의 추적이 시작되자 지난날 협화회 부회장이었던 박봉석에게까지 수사망이 좁혀진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박봉석이 사할린을 탈출할 계획을 세우고 민정서에서 일본인 귀국 업무를 담당했던 사바라가 상관의 서명을 위조하면서까지 귀국허가증을 만들어 박봉석 일가의 사할린 탈출을 돕는다. 박봉석은 사바라의 호의에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그 사람은 왜 우리는 구해 주었을까”(㉔:71)하는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채 여로에 오른다. 그러다 박봉석은 이동을 거듭하면서 “유대 민족은 박해를 받고 있다. 전세계를 여기저기 유랑하고 있으니, 우리의 고뇌를 남보다 훨씬 잘 이해할 게 분명하다”(㉔:73)는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는가 하면 『백년동안의 나그네』는 또 다른 등장인물인 주도홍의 말을 통해 ‘민족’이 전체주의적 욕망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실현될 경우 일어날 파국을 경고하기도 한다.

‘…인간은 민족을 초월하여 서로 도울 때 가장 인간적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 한 민족이 동포를 감싸거나 돕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하물며 그 민족이 다른 민족의 억압을 받고 있다면, 자기 민족의 독립과 변명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민족이 한 사람의 동포를 구하기 위해 다른 민족에 팔린 한 사람의 이웃을 죽인다면, 그 민족은 이미 위험하다. 이 20세기는 이런 민족간 분쟁에 노출되어 있는 게 분명하다. 이런 시대에 인간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무엇일까? ‘민족’과 ‘인간’이 동등한 가치로써 내재된 존재. 이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해도, 그런 인생관을 공유할 때만이 인류의 내일에는 비로소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데 인간은 민족으로 존재하는 한,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타적이 되어 버리는 집단인 것도 사실이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역사는 그러했다. 그렇다면 아예 이 지상에서 모든 민족이 해체되어버리면 좋겠지만, 그런 날은 아마 500년이 지나도 오지 않을 것이다. … 강대 민족일수록 약소 민족을 괴롭힌 것이 20세기의 현실이었어… 그런데 약소 민족은 어떤가. 자기네 불우한 처지나 역경을 모두 강대 민족 탓으로 돌려버리는 안이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것 또한 엄연한 하나의 현실이야…’ (㉔:252)

민족이라는 개념에 도사린 전체주의적 속성을 경계하는 주도홍의 발언을 통해

『백년동안의 나그네』가 재일을 민족적 정체성으로 환원하는 시각과 거리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백년동안의 나그네』는 민족이 20세기적 리얼리티를 구성하는 엄연한 현실로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민족을 해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백년동안의 나그네』는 ‘민족’이라는 용례를 ‘인간’이라는 보편적 가치로 확장하여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이러한 입장은 재일을 형상화하는 방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백년동안의 나그네』에서 재일은 어떤 고정된 형상이 아니라 민족이라는 특수성과 인간이라는 보편성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해체와 재구축을 반복하는 것으로 제시된다.⁴⁴⁾

박봉석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 『백년동안의 나그네』가 재일의 형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는 것은 민족이나 내셔널리즘적 정체성이 아니라 오히려 나그네라는 운명 그 자체이다. 이렇듯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백년동안의 나그네’는 재일의 표상으로서 그 자체로 소설의 주제의식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재일을 나그네로 표상할 경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재일이란 무엇/어떤 존재인가?’이라는 질문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백년동안의 나그네』에서 나그네로 표상되는 재일이란 어떠한 안정적인 정체성도 보장하지 못한다. 또한 재일을 나그네로 표상할 경우 소설은 재일에 대한 뚜렷한 전망을 제시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재일의 의미화를 둘러싼 이러한 곤란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재일이라는 존재 양식에 본래부터 내제되어 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

44) 민족이라는 특수성과 인간이라는 보편성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해체와 재구축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재일은 이회성의 문학 여로를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형상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사할린, 도쿄, 홋카이도, 남한, 독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을 중흥무진 누비며 정주하지 않음/정주할 수 없음 사이를 왕복하는 이회성의 문학 여로 속에서 재일의 형상은 무국적자, 코스모폴리탄, 난민, 노마드, 나그네 등 다양한 형상과 접속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회성이 형상화하는 재일은 상호텍스트성의 관점에 입각하여 여러 삶-형상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귀납적으로 파악할 때 그 모습을 드러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회성의 문학 여로에 등장하는 여러 삶-형상들을 통해 ‘재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척시킬 필요가 있다.

그네라는 메타포는 재일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재일을 양산한 역사적, 사회적 조건을 환기시키는 나그네라는 메타포에 주목함으로써 재일을 야기한 다양한 조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일은 단순히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제한적 용법에 서 벗어나 정치적이고 실천적인 상상력을 추동하는 담론으로서 기능한다.⁴⁵⁾

한편 『백년동안의 나그네』에는 국민적 경관에서 비가시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적 경관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의 궤적에조차 자신의 존재를 기입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적지 않게 등장하는데, 이처럼 국민적 경관으로부터 배제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재일의 형상에서조차 누락된 이들을 조명함으로써 재일에 관한 사유를 보다 정치하게 전개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러한 존재들은 이동 서사의 주체가 되지 못한 까닭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못하는데, 박봉석의 젊은 처인 춘선과 유근재의 일본인 아내인 마쓰코(松子)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춘선은 일본 패전 후 일 년이 지난 뒤, 박봉석이 중매로 맞아들인 재취이다. 강원도 출신인 춘선은 열여섯에 '정신대' 신분으로 일본으로 건너와 한동안 오사카 메리야스 공장에서 노역했으나 얼마 뒤 가라후토 탄광촌의 포주집으로 끌려간다. 춘선은 “끔찍한 섬에서 당신을 데리고 나”^(㉔:194)오겠다는 박봉석의 말을 믿고 그와 결혼했지만, 조선에 도착하는 즉시 박봉석에게서 달아나 새 삶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랬던 춘선이 하리오수용소에서 귀국이 논의되는 와중에 돌연 일본에 남겠다고 박봉석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애초의 계획을 포기한다. 그랬을 때 문제는 춘선이 남편인 박봉석의 결정에 자신의 욕망을 양보한 시점

45) 이상의 방식으로 재일을 이해하는 한 예로 다케다 세이지를 들 수 있다. 그는 “‘조선인’에도 ‘일본인’에도 정체성을 일치시킬 수 없었던 재일의 경우, ‘재일’이라는 삶의 문제는 “어떻게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획득하는가”라는 것에 환원될 수 없다. 오히려 차별받는 인간은 “어떻게 자신에 대한 마이너스적 존재 규정을 부정할 수 있는가”라는 실존상의 과제에 반드시 부딪힌다”. “오히려 자신과 같은 “어중간한” ‘재일’ 안에 ‘재일’이라는 것의 현대적 보편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해했던 것”이라고 설명한다. 나아가 이러한 맥락으로 인해 “현재 ‘재일’이라는 말은 ‘국제화’와 ‘균질적인 내셔널리티의 해체’와 같은 현대적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나아가 “‘재일’이라는 말은 적극적으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키워드”가 된다고 주장한다(다케다 세이지, 앞의 책, 259-260쪽).

에 그녀의 욕망이 끝까지 추구되었을 경우 펼쳐졌을 이동의 궤적이 오로지 가능성으로만 남겨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로써 정신대로 일본에 왔다가 이후 사할린 탄광의 유곽으로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향해야만 했던 춘선의 이동은 충분히 의미화되지 못한 채 어느 자이니치 일가의 이주사에 묻혀버리고 만다.

그런가 하면 일본인 처인 마쓰코라는 존재와 마쓰코와 유근재 사이에서 난 사나에, 사치코의 존재는 재일을 ‘민족’에 국한할 때, 일본인 처나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자녀들이 비가시화되는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촉발한다. 『백년동안의 나그네』에서 이상의 문제는 공처가로 묘사되는 유근재가 조선으로 돌아갈 계획을 포기하고 일본에 남기로 결심하기까지의 상황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유근재는 하리오수용소에 머무는 동안 송환과장으로부터 “일본인 아내가 조선에서 살려면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라” (㉔:271)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뒤 고향으로 돌아갈지 여부를 고민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쓰코가 당분간 일본에 머무르자고 제안하고 유근재는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 마쓰코의 제안을 수락한다. 그리하여 서사 내에서는 유근재 일가가 일본에 남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갈등이 수습된 것처럼 마무리된다. 그러나 가부장인 유근재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듯 보이는 이와 같은 결론을 두고 순진한 발상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힘든데, 유근재가 재일로서 살아갈 일본이 일본인인 마쓰코가 생각하는 조국 일본과 완전히 다른 세계일 거라는 사실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근재는 조선이 마쓰코와 사나에, 사치코에게 적대적 공간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지만 자신이 재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일본 또한 미쓰코, 사나에, 사치코에게 억압과 부정의 공간일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유근재에게 재일은 자기발견의 형식일 수 있지만, “‘일본인’이자 ‘왜놈인’”(㉔:271) 마쓰코나 “‘튀기’라고 놀림받고 차별받을”(㉔:272) 유근재의 딸들이 재일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 순간 차별과 자기분열이라는 폭력적 사태와 마주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더해 마쓰코라는 존재는 재일이 하나의 단일한 민족적 정체성을 가진 집단으로 상상될 경우, 그러한 재일의 정체

성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존재를 소외시키거나 불투명하게 만드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를 환기한다.⁴⁶⁾

춘선이나 마쓰코 이외에도 『백년동안의 나그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동의 주체로 나서지 못한다. 『백년동안의 나그네』에 등장하는 남성 인물들이 이동의 초반에는 이동을 추동한 조건에 휩쓸리는 경향을 보이다가도 후반부로 갈수록 오히려 이동을 실존적 자각의 계기로 전유했던 것에 비하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의 이동 경험이 남성들의 이동에 딸린 부차적인 것으로 다뤄짐으로써 이동 중 여성들의 내면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을 삶의 고뇌나 사유가 서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기지 못하고 그대로 남편의 이동에, 아버지의 이동에, 가족의 이동에 흡수되어 그 자체로서 의미화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때문에 이동 경험을 통해 여성들이 어떠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는지 충분히 의미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년동안의 나그네』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에 주목하면 그간 남성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온 재일의 역사를 문제적 상황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다.

특히 춘선의 경우 “전쟁 때는 구더기처럼 달라붙던 사내들이”(㉔:220) 자신을 가리켜 “‘갈보’라느니 ‘위안부’라느니 ‘조선인의 수치’라느니 ‘창녀’라드니, 그야말로 매국노 취급을 하는”(㉔:220) 상황에서 남성중심적 지배질서에 억눌려 제대로 의미화하지 못했던 자신의 이동을 적극적으로 서사화하는 한편으로, 이동을 통해 현재 상황을 타계하려는 욕망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춘선의 위반적 혹은 전복적 욕망과 집속함으로써 기존에 미처 가시화되지 않았던 재일의 다

46) 한편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춘선과 마쓰코의 이동이 남성의 이동과 결부되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에 비해 애초에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이동도 있다. 소설에서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박봉석의 형수는 박봉석의 형인 자신의 남편이 소련군 사할린 상륙 당시 사살당한 이후, 징용으로 끌려온 조선인 노동자와 밀회를 거듭하던 중 “집안의 체면”(㉔:109)도 생각하지 않고 “상식(上食)도 끝나지 않았는데”(㉔:106) 외간남자와 눈이 맞은 형수의 일을 “친척들 사이의 유대가 무너지”(㉔:105)는 징조로 간주한 박봉석이 사내에게 린치를 가하자 사내와 함께 야반도주한다. 문제는 소설이 박봉석의 형수가 야반도주한 이후의 행적에 관해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랬을 때 박봉석 형수의 경우처럼 이동의 경로를 추측할 일말의 단서조차 남아 있지 않은 이동들을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재일에 대한 사유는 이러한 문제에 천착함으로써 그 폭과 깊이를 점차 심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양성을 발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한편 마스코라는 인물이 주목하면 민족적 순수성에 기대에 재일을 상상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기존의 재일 담론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었던 존재를 조명한다는 측면에서 “‘재일’의 아이덴티티의 ‘다양성’⁴⁷⁾을 드러내려는 기획과도 연결된다.

『백년동안의 나그네』는 이동을 통해 민족이나 국가로부터 거리를 둔 재일의 형상을 제시하는 한편으로, 재일이라는 방식으로도 포착하기 어려운 잉여적 존재들을 조명한다. 그 가운데 『백년동안의 나그네』가 펼쳐내는 존재들의 삶의 궤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방대한데, 여기서 재일은 민족적 혹은 내셔널리즘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구축된 것이 아닌, 유랑할 수밖에 없는 실존적 상태를 가리킨다.⁴⁸⁾ 요컨대 이회성의 소설에서 재일은 유랑이라고 하는 이동의 형태 속에서 형성되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의미에서 『백년동안의 나그네』가 형상화하는 재일이란 재일을 만들어 내고, 재일이 만들어 가는 궤적 그 자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한편 『백년동안의 나그네』는 이동 속에서 현현하는 재일의 형상을 파악하려는 시도 또한 어떠한 존재들에게는 적합한 방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47) 한편 다케다 세이지는 이회성의 문학 전반에 걸쳐 이처럼 다양한 재일의 상이 제시되는 것에 관하여 그것이 재일 2세 작가인 이회성의 특징이라며 세대론적 관점에 입각해 설명하기도 한다. 그는 1992년 4월 『신초』에 발표된 이회성의 「진짜 여름」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 소설에는 하나의 민족적인 공동성이 해체되어가는 과정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세대에게 이미 이 과정의 의미를 ‘유리적’으로(좋은 것, 나쁜 것으로서) 파악하는 동기는 소거되어 있다. 단지 각자 제각각의 모습으로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되는 자기 아이덴티티의 갈라진 틈새에서 이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아이덴티티의 불안은 위기를 배우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환할 것이다. 여기에 ‘재일’의 아이덴티티의 ‘다양성’이라는 것을 파악하기 힘들게 된 근본적 이유가 존재한다”(다케다 세이지, 앞의 책, 272-273쪽)라고 설명하는데, 이와 같은 분석은 비단 「진짜 여름」에만 국한된 특징이 아니라 이회성 문학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재일판’의 특징이다.

48) 이처럼 이회성의 문학에서 재일의 정체성이 민족적 정체성으로 수렴하지 않는 문제는 재일이라는 형식 그 자체에 기인한다고 봐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케다 세이지의 논의를 참고하면 “‘조선인’에도 ‘일본인’에도 정체성을 일치시킬 수 없었던’ 재일의 경우, ‘재일이라는 삶의 문제는 ‘어떻게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획득하는가’라는 것에 환원될 수 없으며, 오히려 차별받는 인간은 ‘어떻게 자신에 대한 마이네스적 존재 규정을 부정할 수 있는가’라는 실존상의 과제에 반드시 부딪’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자신과 같은 ‘어중간한’ ‘재일’ 안에 ‘재일’이라는 것의 현대적 보편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간다. 그러한 까닭에 이회성이 형상화한 재일은 “‘국제화’와 ‘균질적인 내셔널리티의 해체’와 같은 현대적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나아가 “‘재일’이라는 말은 적극적으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다케다 세이지, 앞의 책, 259-260쪽).

사실을 지나치지 않는데, 이상의 문제의식은 이동의 궤적에 흔적을 남기지 못하는 존재들을 조명함으로써 구체화한다.

이처럼 민족이나 국가라는 거대 담론 바깥에서 모험적인 궤적을 남기는 이동과 달리 겨우 미약한 존재감만을 드러내는 이동의 선들에 대하여 그것들을 어떻게 가시화할 것이며, 또 어떻게 의미화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요컨대 우리는 『백년동안의 나그네』가 형상화하는 재일을 면밀히 독해하는 과정 속에서 재일에 관한 사유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이동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의미화하는 작업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VI. 나가며: 반(反/半) 국민적 상상력과 ‘재일’의 심상경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에서 냉전으로 국제질서가 전환되면서 국경의 조정, 인구의 재배치, 새로운 권력 구도의 출현 등 세계적 차원의 변화가 전개되는 가운데, 그러한 변화를 추동하는 배면의 원리였던 이동은 재일의 존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회성의 『백년동안의 나그네』는 이와 같이 국제적 수준의 변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1947년을 배경으로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밀항한 조선인들의 이동과 역류의 과정을 형상화한다.

『백년동안의 나그네』에서 이동은 재일의 존립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이러한 이동을 촉발하는 주요 요인은 종전을 기점으로 제국주의에서 냉전으로 전환되는 국제질서이다. 사할린은 그와 같은 국제질서의 변환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전개되었던 곳이었다. 그러한 까닭에 강제징용이나 가난에 의한 자발적 이주 등의 이유로 전전 사할린으로 이주했던 조선인들은 이러한 세계사적 수준의 격동에 휩쓸려 ‘나그네’가 되었다.

한편 『백년동안의 나그네』에서 이동은 사할린에서 출발한 조선인들에게 ‘재일’이라는 자신들의 현존을 일깨우는 계기이자 원리로 작용했다. 사할린에서 출발해 하리우수용소에 도착하기까지 『백년동안의 나그네』 속 인물들은 이동에 따른 만

남과 성찰의 순간들을 경유하며 실존 양식을 체득해 갔다. 그리하여 그들은 '해방된 민족'이라는 상태로부터 거리를 두고 사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이동을 초래한 역사에 휩쓸려가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이동의 주체로서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획득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국민-국가의 바깥에서 재일의 실존을 모색하는 시도 속에서 실현됐다. 국민-국가의 욕망이 극단적으로 관철되는 하리오수용소를 배경으로 그러한 실험이 결행되었다. 하리오수용소는 국민-국가 내부의 이질적인 존재들을 국민-국가의 영역으로 완벽하게 흡수하거나 반대로 영구히 퇴출시켜버림으로써 국민-국가의 '순수성'을 공고히 하는 일종의 국가장치였다. 이에 대해 재일은 국민-국가의 통치성이 관철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작용 및 효과를 낳는 '고백'이라는 자기획득 방식을 통해 존재의 복잡한 결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것은 국민-국가의 범위 내에서는 결코 의미를 획득하지 못했고, 오히려 국민-국가를 초과하는 심상공간 속에서만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재일의 형상은 '나그네'라는 심상 속에서 구체화하는데, 여기서 나그네는 재일을 고정적 정체성으로 파악하는 인식으로부터 거리를 둔 상태에서 재일을 만들어 낸 역사적, 사회적 조건들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아울러 나그네로 표상되는 재일의 실존은 고정된 정체성이 아닌 의미 생성의 과정으로서 제시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처럼 재일을 나그네의 형상으로 포착할 경우, 이동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은 재일에서 누락되어 의미화하지 못하는 데, 재일 담론은 이처럼 누락된 존재들을 발견하고 충분히 의미화했을 때 보다 더 생산적인 논의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백년동안의 나그네』뿐만 아니라 이회성의 문학세계 전반에 두루 걸쳐있는 나그네의 형상과 그러한 나그네의 형상 속에서 구체화하는 재일의 심상경관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본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사할린(『백년동안의 나그네』)을 비롯해 홋카이도(『다듬이질하는 여인』·『큰바위 얼굴』), 도쿄(『청구의 하숙집』·『우리청춘의 길목에서』), 남한(『약속의 땅』·『금단의 땅』), 독일·소련·러시아(모스크바)·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북한(『유역』)까지 중형무진 펼쳐지는 이회성의 문학적

여로는 정주하지 않음/정주할 수 없음 사이를 왕복하며 무국적자, 나그네, 코스모폴리탄, 난민, 노마드 등의 형상과 접속한다. 이회성의 문학적 여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삶-형상들은 대부분 국민-국가의 외부에서 존재의 양식과 사상적 거취를 확보해 가는데, 우리는 이러한 삶-형상들로부터 국민-국가가 노정하는 여러 한계들을 응시하하고 돌파하기 위한 대안을 정초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보는 지도에서 국경을 지우고 이회성의 형상화하는 여로를 지도에 표시하면 국민-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경계로 하여 인위적으로 분할된 구획들을 월경하면서 흐르는 이동의 줄기가 도드라져 올 터인데, 재일의 심상경관은 이렇듯 국민-국가의 안팎으로 뻗어 나가는 초국경적 이동 속에서 국민-국가의 원심력에 길항하며 형성된다. 그렇다면 재일의 존재 양상은 국가로부터 신분이나 지위가 박탈된 '비국민'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탈산해 나가는 '반(反/半)국민'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그렇다면 '반국민'인 재일의 심상경관 속에서는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사할린, 홋카이도, 모스크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등을 누비는 이회성의 문학적 여로에 서경식의 목소리를 포개어보고 싶다.

조선인은 역사적으로 보아 지금까지 반국민 또는 반(半)난민의 위치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조건에서는 반난민이라는 것의 고통과 부자유와 함께, 당연하게도 국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국가와 자신의 간격을 볼 수 있는 시각 등도 주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어떤 국가의 국민으로 질서 정연하게 정돈되는 일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난민의 시대를 거쳐서 모든 사람들이 국가에 속하지 않고, 즉 국민이 되지 않고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 받고 인간적 생활을 향수할 시대가 도래해야 할 것입니다. (...) 난민 내지 반난민으로서 살아온 재일조선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고 국민이라는 범주를 초월했던 존재이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반세기가 넘게 반난민으로 살아온 재일조선인은 도리어 국민국가의 시대를 넘어서실 전망을 가진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⁴⁹⁾

이회성이 펼쳐내는 문학 여로에서 사람들은 각각 사할린에서, 홋카이도에서, 모스크바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즈흐스탄에서,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혹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자 자신이 걸 어온 고유한 이동-삶의 궤적으로부터 그 답을 구한다. 이회성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현재 자신이 살아가는 장소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방인 내지는 나그네의 상태에 머문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각의 삶들은 ‘국민’으로서의 삶과는 대별되는 존재 양식으로서 그 고유성과 진정성이 부각된다. 이에 대하여 “난민의 시대를 거쳐서 모든 사람들이 국가에 속하지 않고, 즉 국민이 되지 않고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고 인간적 생활을 향수할 시대가 도래해야 한다”고 말하는 서경식의 목소리는 재일뿐만 아니라 모든 개별자들이 국민-국가에 회수되지 않는 고유성과 진정성을 보유함으로써 국민-국가적 경관과는 다른, 새로운 경관이 출현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우리는 이로부터 각각의 개별자들이 발산하는 고유성과 진정성이 교차되는 가운데 거듭 풍성해지는 재일의 심상경관을 상상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이회성, 김석희 역, 1995, 『백년동안의 나그네』 상·하, 프레스빌

2. 논문 및 자료

- 김민영, 2000, 「사할린 한인의 이주와 노동, 1939-1945」, 『국제지역연구』 제4호, 국제지역학회
- 김병구, 2009, 「이산과 '재일' 적 삶의 기원에 대한 탐색—이회성의 『백년동안의 나그네(百年の旅人たち)』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43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 김승일, 2006, 「사할린 한인 미귀환의 접근과 제언」, 『제1회 미귀환연구 학술심포지엄—해방후 해외 한인의 희생과 미귀환』,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김예림, 2011, 「현해탄의 정동—국가라는 '슬픔'의 체제와 밀항」, 『석당논총』 제49집, 동아대학교부설 석당전통문화연구원
- 김환기, 2018,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의 경계의식과 '트랜스네이션」, 『횡단인문학』 창간호, 숙명인문학연구소
- 미야모토 마사아키, 2008, 「점령기 일본 정부의 재일조선인 대책 검토—1948년 증반~1949년 초를 중심으로」, 『제3회 미귀환연구 학술심포지엄—해방후 해외 한인의 희생과 미귀환』,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민병은, 2016, 「1945년 전후 사할린 거주 한국인들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의 다양성 연구—이회성의 『백년동안의 나그네』 분석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제30집, 한일민족문제학회
- 박광현, 2014, 「'재일'의 심상지리와 사할린」, 『한국문학연구』 제47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 박정이, 2002, 「이회성의 『百年の旅人たち』—考察」, 『日語教育』 제21輯, 한국일본어교육학회
- 박호영, 2008, 「이회성의 문학 작품에 나타난 장소 이미지: 가라후토 마오카를 중심으로」, 『재일동포문학과 디아스포라』 3, 전분대 재일동포연구소 편, 제이앤씨
- 변화영, 2008, 「고백과 용서의 담론—이회성의 『백년동안의 나그네』를 중심으로」, 『국어문학회』 제44집, 국어문학
- 세리카와 데쓰요, 2010, 「재일 한국인 작가의 분단의식」,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소재영, 2009, 「재일동포문학의 민족문화적 성격 연구」, 『국학연구논총』 제4집, 태민국학 연구원
- 송하춘, 1998, 「역사가 남긴 상처와 민족의식-이회성론 (1)」, 『한국학연구』 제10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_____, 1999, 「역사가 남긴 상처와 민족의식-이회성론 (2)」, 『한국학연구』 제11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양명심, 2003, 「이회성 초기작품에 나타난 '정체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9, 「해방 직후 일본의 모빌리티 시스템과 '재일조선인'의 형성-이회성의 『백년동안의 나그네(百年の旅人たち)』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제84집, 일본어문학회
- 여성구, 2008, 「사할린 한인의 희생과 미귀환」, 『제3회 미귀환연구 학술심포지엄-해방후 해외 한인의 희생과 미귀환』,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이연식, 2014, 「사할린한인 귀환문제에 대한 전후 일본정부의 대응」, 『동북아역사논총』 제46호, 동북아역사재단
- 이용균, 2015, 「모빌리티의 구성과 실천에 대한 지리학적 탐색」,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8호, 한국도시지리학회
- 이재혁, 2011, 「일제강점기 사할린의 한국인 이주」,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15집,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 이정은, 2014, 「'난민' 아닌 '난민수용소'·오무라(大村)수용소-수용자·송환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30집, 한국사회사학회
- 이한창, 2017, 「이회성의 전기 작품 활동과 문학세계」, 『일본어문학』 제72집, 한국일본어문학회
- 장사선, 2007, 「재일 한민족 문학에 나타난 내셔널리즘」,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1호, 한국현대문학회
- 장석흥, 2003, 「해방 후 귀환 문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5집, 한국근현대사학회
- 전갑생, 2015, 「오무라(大村)수용소와 재일조선인의 강제추방 법제화」, 『역사연구』 제28호, 역사학연구소
- 정재훈, 2011, 「이회성 초기 소설에 나타난 탈식민성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승기, 2014, 「수용소라는 안전장치-오무라(大村)수용소, 폴리스, 그리고 잉여」, 『한국학연구』 제32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채영국, 2007, 「미귀환 재일 한인의 거주권 문제와 일본의 탄압정책」, 『제2회 미귀환연구 학술심포지엄-해방후 해외 한인의 희생과 미귀환』,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최계수, 2006, 「사할린 역류 한인의 국적귀속과 법적 제문제」, 『제1회 미귀환연구 학술심포지엄-해방후 해외 한인의 희생과 미귀환』,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3. 단행본

- 고모리 요이치·다카하시 데쓰야, 이규수 역, 2000, 『내셔널 히스토리를 넘어서』, 삼인
국제가톨릭성서공회편, 1998, 『해석판 공동번역 성서』, 일과놀이
김원우·심원섭 외, 2001, 『재일 한국인 문학』, 흥기삼 편, 솔
김환기 편, 2006,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새미
다케다 세이지, 재일조선인문화연구회 역, 2016, 『‘재일’이라는 근거』, 소명출판
사카사이 아키토, 박광현 외 역, 2020, 『‘갯더미’ 전후공간론』, 이숲
서경식, 이규수·임성모 역, 2006, 『난민과 국민사이』, 돌베개
유숙자, 2000, 『재일한국인 문학연구』, 월인
이순형, 2004, 『사할린 귀환자』, 서울대학교출판부
임지현·박노자 외, 비교역사문화연구소 편, 2008, 『근대한국, ‘제국’과 민족의 교차로』,
책과함께
전북대학교 재일동포연구소 편, 2008, 『재일 동포 문학과 디아스포라』 1-3권, 제이앤씨
존 토피, 이충훈·임금희·강정인 역, 2021, 『여권의 발명』, 후마니타스
현무암·파이차제 스페틀라나, 서재길 역, 2019, 『사할린 잔류자들—국가가 잊은 존재들의
삶의 기록』, 책과함께

투고일: 2022년 10월 09일 심사완료일: 2022년 10월 09일 게재확정일: 2022년 10월 17일

■ Abstract ■

Imaginary Geographies of Zainichi in Sakhalin Return Stories
: An Analysis of Hoi-sung Lee's *Travelers for One Hundred Years*

Jang, Eun-ae (Kookmin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Hoi-sung Lee's *Travelers for One Hundred Years* and examines patterns of narrative transference that played crucial roles in constructing the Zainichi as a social identity. Transference is an existential process through which social phenomena trigger epistemological self-discovery. Through this process, Zainichi identity served as a vessel of hope through imperialist conquests, totalitarianism, and during the Cold War.

Set in 1947, *Travelers for One Hundred Years* narrates the transference responsible for solidifying Zainichi and recounts the detention of Chosun people who went from Sakhalin to Japan after WWII. This period marked the start of a new world order with the collapse of imperialism and the transition to a world polarized by ideology. It was this dynamic that prompted the transference leading to Zainichi as a salient identity and as a dynamic means of survival. Starting from Sakhalin's changing significance (Ch. 1), patterns of transference thread together new narrative and historically contextualized accounts (Ch. 2), which eventually lead the Zainichi to see their experiences as socially interconnected in ways that transcended framed through nation-state affiliation (Ch. 3). Confession became a means of resisting the state (Ch. 4) and eventually created a new imagined view of Zainichi as permanent 'travelers' (Ch. 5). It was through these transference processes and reimaginings of their geographies and how they fit in them that the Zainichi solidified an identity that remained salient yet impervious to complete nation-state envelopment.

Key words: Sakhalin, Transference, Travelers, Zainichi, Nation-state, Mental scenery, Self-awareness